

## 북한 ‘구전문학(口傳文學)’ 연구에 나타난 ‘인민’ 담론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김영희\*

<차례>

1. 들어가며
2.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에 나타난 ‘구전’·‘문학’·‘인민’
3. ‘인민창작’이라는 개념의 대두
4. 소련과 중국 학계의 영향
5. ‘인민성’과 ‘구술성’ 사이의 길항
6. 나오며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북한 ‘구전문학’ 연구사에서 ‘인민성’이 어떻게 소환되고 기술되었는지 검토하는 글이다. 특히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사이에 ‘인민창작’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어떤 학문적 담론이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 이와 같은 개념의 탄생을 추동한 내외적 조건들을 탐색하는 동시에, 이 개념이 이후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는지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시기 북한 ‘구전문학’ 연구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은 고정옥이었다.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 강좌 수강생이었던 고정옥은 학부 졸업논문으로 ‘조선민요’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해방 후 이를 수정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 고정옥은 민족학적 관점에서 조선 민요를 연구하면서도 민족학적 관점을 문학적 관점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고민했다. 아울러 그는 민요를 ‘피지배계급의 노래’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민요의 ‘인민적 지향’을 해방 후 저작에서 더욱 강조하였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은 전후 사회 복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사회적으로나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정치적으로 북한 사회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몰입하였다. 이는 북한 사회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주체사상’을 점차 체계화해 나가면서 사회 전면에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기획이자 북한 사회가 직면한 역사적 조건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문학 연구자들도 ‘조선문학’의 정체성을 ‘인민성’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면서 봉건적 잔재나 식민의 흔적을 지우고 항일무장투쟁기 문학을 소환함으로써 혁명적 전통과 인민적 지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북한 ‘구전문학’ 연구에서 ‘인민창작’의 개념이 대두되고 이를 표제어로 내건 잡지가 창간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개된 일이었다.

다른 한편 ‘인민창작’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구전문학 연구자들이 참조한 것은 중국의 ‘민간문학(民間文學)’ 연구와 소비에트 민속학의 여러 연구 성과들이었다. 맑스-레닌주의 문예 이론 및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 미학에 의거하되 좀더 구체적으로는 1930년대 고리키에 의해 주창된 ‘인민의 위대한 창조물로서 옛 구전이야기와 민요의 가치 발견’이라는 주제에 경도되었고, 고리키의 관점을 계승한 블라디미르 치체로프 등의 소비에트 민속학자들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문학’의 하위 범주로 ‘조선 구전문학’을 구성해야 하는 학문적 소임 앞에서 ‘인민창작’의 개념은 재편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 ‘구전문학’ 연구자들은 다각적인 방향으로 학술적 토론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인민성’의 사상적 내용과 이념적 지향을 견지하되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구전문학’을 표제적 개념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인민성’과 ‘구두성(구술성, 구전성)’ 사이의 간격에 내재한 여러 쟁점들, 예를 들면 인민성이나 집체성이 구두성과 맺는 관계나 기록성과 구술성 사이의 관계 문제, 혹은 인민성과 구두성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 ‘구전문학’의 인민적 지향을 명백하게 드러내면서도 비문학적 요소들을 ‘인민창작’의 개념에 결부시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핵심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다.

**주제어** 구전문학, 인민성, 인민, 인민 담론, 인민창작, 구두성, 구술성, 구전성, 집체성, 기록성, 조선어문학 강좌, 고정옥, 민속학, 소비에트 민속학, 민간문학, 치체로프, 장권표, 김민혁, 사회주의 사실주의, 조선구전문학연구, 조선구전문학개요

## 1. 들어가며

학술적 담화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개념과 범주는 형성과 정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특정 시대와 조우하고 그 시대적 요청에 응대하며 자신의 역사성을 구축해나간다. 개념과 범주의 역사를 성찰하는 작업은 그것이 형성되거나 지식 권력의 장 내에서 특정 지위를 갖게 되었을 때 어떤 권력 효과들이 작용했는지 분석하는 동시에 형성 과정의 계보학적 원류를 찾아가는 탐색의 과정을 예고한다.

문학, 혹은 문학사가 자연적 결과물이 아니듯 이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과 범주들 역시 학문적 담론의 영역에서 구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개념과 범주는 문학사를 구성하는 사건들이 어떻게 선별되고 해석되고 배치되었는지 보여주면서 이들 사건 사이를 횡단한다. 사건을 횡단하는 개념과 범주의 역사는 어느 문학사의 경우에도 틈새와 간극, 단절과 외부를 만들어 내지만 한국 문학사처럼 이 횡단면들이 불규칙적이고 횡단의 궤적이 역동적인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 문학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들은 식민지 경험과 분단을 거치면서 굴절과 왜곡으로 복잡하게 뒤엉킨 여정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이른바 '구비문학(口碑文學)'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1970년대였다.<sup>1)</sup> 남한 지식 사회 내부에서 '민족'과 '민중'을 핵심어로 한 담론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민족 문학', 혹은 '민중 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구비문학'은 식민지 단절을 지우고 '훼손'되지 않은 민족 문학의 면면한 뿌리와 원류를 확인하게 해주는 '구술'의 문학이면서 '민중'의 의식과 삶을 표현하는 문학으로서 이 두 가지 시대적 요청에

1) '구비문학(口碑文學)'이라는 개념의 형성 과정과 '구비문학'이 '한국문학'의 하위 영역으로 자리잡은 과정에 대해서는 김영희, 『'구비문학(口碑文學)'이라는 개념과 범주의 형성 과정 탐색』,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2015, 365~414쪽 참조.

대한 적절한 응답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술’과 ‘기록’이라는 이분법적 이중 언어 도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구술’에서 ‘기록’으로의 이행이라는 진화론적 관념에 입각한 문학사의 도식 외에도 이 이중 언어 관념이 표방하는 것은 피지배계층의 언어 표현으로서의 ‘구술’과 지배계층의 언어 표현으로서의 ‘기록’이라는 관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이어져 ‘구비문학’은 어느 경우이나 ‘민중’의 순수한 의식과 내면 세계, 혹은 고단하면서도 순박하게 아름다운 민중적 삶을 재현하는 표현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좀더 일찍 ‘구술’ 혹은 ‘구전’의 문학을 민중의 언어 표현 매체 및 예술로 주목하였다. 북한에서는 1950년대 후반 북한 문학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단계에서 식민지 단절을 극복하는 문학적 전통으로 조선 후기 실학 등의 고전에 주목하는 한편 이른바 ‘인민창작’으로 호명되는 민요와 구전이야기 등의 자원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문학’의 ‘인민문학’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구전문학’에 주목한 것이다. 고대국가에서 시작된 ‘인민’의 노래와 이야기가 조선 후기를 거쳐 식민지 시기를 관통하며 노동자, 농민의 예술로 이어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 ‘인민’의 문학과 예술은 반제·반일 및 반자본의 정서와 의지를 표상한 것으로 의미화되었다. 이에 따라 의병항쟁기나 항일무장투쟁기의 노래와 이야기들이 북한 문학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혁명적 전통으로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북한 문학 연구에서 ‘口述言語=民의 表現’이라는 관념은 1960년대 초 ‘구전문학’을 ‘인민창작’으로 호명하는 장면에서 가장 극적으로 전개된다. 이는 ‘folk’를 ‘인민’으로 해석한 소련 민속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했지만, 당시 북한 사회에서 ‘인민’의 전형과 규범적 가치, ‘인민’의 문학적 전통과 재현 방식 등이 학술 담론의 주요 쟁점이었기에 발생한 일이었다.<sup>21</sup>

1950년대 말~1960년대 초는 북한 문학 연구, 특히 '구전문학' 연구에서 개념과 범주가 정립되고 이론적 체계가 형성되는 시기였으며, 이와 같은 작업을 이끌어간 핵심 개념은 '인민', 혹은 '인민성'이었다. 결국 해당 시기 북한 '구전문학' 연구 영역 내 '인민' 담론을 탐색하는 작업은 북한 '구전문학' 연구의 핵심 개념과 범주가 어떤 흐름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어떤 줄기로부터 이어져나온 것인지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인민', 혹은 '인민성'의 개념은 당대 연구자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학문적 담론의 계보학적 전통 속에서 다른 개념과 길항하고 교섭하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 사회의 정치적 조건과 시대적 요청, 그리고 학술 공동체 내·외부의 자극과 지적 전통이 서로 맞물리고 융트림하는 가운데 '인민'의 담론이 북한 문학 연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 2.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에 나타난 '구전'·'문학'·'인민'

1950년대 후반 북한 과학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구전문학' 연구와 자료 수집 활동의 구심에는 연구자 고정옥이 있었다. 그는 과학원 내 문학 연구자이자 '구전문학' 전문가로서 이론적 토대가 탄탄한 인물이었으며, 이

---

2) 민속, 혹은 구술 문화의 연행 및 전승 주체로서 'folk'에 주목한 것은 소련이나 북한만이 아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1980년대 초 미국의 민속학자 알랜 던테스(Alan Dundes)도 “Who are The Folk?”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연행 주체로서의 '민민'을 농촌 사회나 시골의 집단과 동일시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한 바 있다.(Alan Dundes, “Who are the Folk?”, *Interpreting Folklo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참조.) 이와 같은 던테스의 질문은 '구술' 혹은 '구전'의 어떤 문화를 정의하고 분석하려 할 때 구술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질문하지 않고서는 그 개념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와 같은 그의 연구 역량은 해당 시기 『조선어문』에 실린 논문과 『조선구전문학연구』(1962)<sup>3)</sup>라는 저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식민지 시기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 강좌 수강생으로서 유럽과 일본의 민속학 이론과 민요 이론 등을 익히고 이를 토대로 『조선의 민요에 대하여(朝鮮の民謠に就いて)』<sup>4)</sup>라는 졸업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방 후에는 이 논문을 수정하여 『조선민요연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고정옥에게 ‘구전문학’ 연구의 이론적 틀은 경성제대 학부 강의와 졸업 논문 작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졸업논문에서 ‘구전문학’ 전체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민요에 대한 그의 관점은 1960년대 초 북한에서 활동하던 시기 ‘구전문학’에 관한 그의 저술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부분이 있다.<sup>5)</sup> 그는 논문 전면(상권) 제2장에서 민요의

3)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참조.

4) 고정옥의 경성제국대학 학부 졸업논문(논문에는 1938년이라는 표시가 있음./졸업은 1939년임.)은 최근 학계에 소개되었다. 이 논문은 가로 15cm, 세로 22.5cm 크기의 원 고지(가로 10행, 세로 24칸)에 세로로 써서 묶은 것을 초록색 하드커버지로 마무리한 상, 하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일본어로 쓰여 있는데, 민요 작곡만 조선어로 쓴 후 그 아래 일본어로 번역해 두었다. 하드커버 표지에는 아무 표시가 없고 책장에 꽂혔을 때 보이는 부분에만 세로로 ‘朝鮮の民謠に就いて 上/下’라고 표시되어 있다. 상권과 하권 속표지 첫 장에 ‘昭和 十三年度卒業論文 1.題目『朝鮮の民謠に就いて』 2.提出者 朝鮮語學文學專攻 高晶玉 3.冊數 二(上·下)’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쓰여 있다. 상권은 속표지 다음 장의 제목(朝鮮の民謠に就いて 上)과 서문, 132장의 본문, 1장의 ‘補遺’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분량은 140장이다. 하권은 속표지 2장과 제목(朝鮮の民謠に就いて 下), 후편(後篇) ‘朝鮮民謠の分類’로 시작하는 432장(133장~505장)의 본문, 8장의 참고문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분량은 444장이다. 이 논문은 경성제대 조선어문학 강좌를 이끌었던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1878~1967)가 소장하고 있다가 그가 텐리대학(天理大學) 교수를 역임하던 시절(1950~1964) 텐리대학 교수 오모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1932~2015) 교수에게 전달하였고, 이것을 다시 오모타니 교수가 이윤석 교수에게 전달한 후 이윤석 교수를 통해 최근 한국 학계에 소개되었다.(김영희,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 탈식민적 전환의 모색과 잉여-경성제국대학 학부 졸업논문(1938년)과 수선사 발간본(1949년)의 비교』, 『은지논총』 49, 온지학회, 2016, 29~80쪽 참조. 이하 ‘김영희(2016a)’로 표기.)

‘학문적 범주’를 논하면서 이제까지 ‘민속학’으로 다루어져온 민요를 ‘문학’으로 다루고자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는 민요가 ‘민속’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sup>6)</sup> 다만 이를 문학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민요는 문학자들이 자주 주의를 기울여왔다. 하지만 대개 역사적으로 문학사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데 불과한 원시문학으로만 간주하거나 시가 연구 및 창작의 방법이나 수단으로만 다루어왔다.

그러나 민요가 **광의의 문학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광의의 문학**’이라 단정한 이유는 ‘**문학**’은 문자를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창작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민요는 본래는 소리를 수단으로 한 미분화된 예술이며 집단이 공동 창작한 것이다.) -중략- 민요는 음악에도 속한다. 아니, 민요는 바로 음악 자체이다. -중략- 음악과 문학의 미분리 상태는, 민요가 스스로 그 원시적 예술임을 표명하는 것으로, 영원히 원시인인 ‘대중’의 지지를 얻을 뿐이다. -중략- 나는 민요를 문학으로 고찰하려고 하는 자이다. -중략- 하지만 조선인의 사상, 감정, 생활을 조선어로 표현한 진정한 조선문학이 빈곤하다는 사실에 직면하면, 민요도 귀중한 문학적 자료가 된다. 문학 그 자체에 민요를 포함시키려면 ‘문자로 쓰인 시’라는 것으로 민요의 개념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민속학적, 음악적, 무용적 속성을 도외시한 채 민요의 문학적 가치를 충분히 밝힐 수는 없다.”<sup>7)</sup>

5)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론하기로 한다.

6) 그는 민요가 ‘민속에 속한다’고 말하면서 ‘민속(folklore)’의 개념에 대해, “민간의 지식”이라는 말인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문화가 낮은 민족 사이에 현재 행해지거나 혹은 개화 민족 중의 몽매한 인민 사이에 보존되어 있는 전통적인 신앙, 관습, 설화, 가요 및 이언(俚諺)을 총괄하고 포함하는 범칭이 되었다”고 기술하였다.(김영희 (2016a), 앞의 논문 참조.)

7) 고정옥, 『조선의 민요에 대하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논문 상권, 13a~15a. a는 제본한 책의 앞면(왼쪽 면)이고 b는 뒷면(오른쪽 면)이다. 졸업논문은 같은 형태로 인쇄된 원고지 두 면이 한 장을 구성하고 있고 이 장의 가운데 부분을 접어 제본

그의 주장과 달리, 서술 내용에 따르면 민요는 문학이기보다는 민속학에 포함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 역시 ‘민요는 마땅히 문학이다’가 아니라 ‘나는 민요를 문학으로 보려 한다’에 가깝다. 그는 자신이 민요를 문학으로 보려는 까닭을 ‘조선문학’의 빈곤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의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 스승이었던 다카하시 토오루를 비롯한 일본인 관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들의 견해는 ‘조선문학’, 특히 한문으로 된 조선의 문학은 모두 중국, 곧 지나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에 순수한 의미의 ‘조선문학’이라 할 수 없고 오로지 조선어로 된 문학만이 진정한 의미의 ‘조선문학’일 것이나 이것은 그 양이 적고 역사도 짧아 진정한 의미의 ‘조선문학’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선어 문학의 근원과 원류에 해당하는, 조선말로 창작·향유된 ‘구전(口傳)’의 자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다카하시 토오루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민요였다. 민요야말로 ‘원시적’이고 ‘토속적’이며 순수한 형태의 ‘조선문학’이라는 것이다. 고정옥 역시 순수하고 토속적이며 원시적인 문학으로서 민요를 다루고 이를 ‘조선문학’을 확충할 주요한 근거로 삼는다. 빈곤한 ‘조선문학’의 외연을 확장할 주요 대상으로 민요를 재발견한 것이다.<sup>8)</sup>

그는 민요 연구에서 음악이나 무용을 제외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문학으로서 민요를 다루기 위해서는 ‘문자로 쓰인 시’의 관념에서 민요를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민요의 실상 자체가 독서 대상으로서의 시, 다시 말해 개인이 창작하여 문자로 기록한 시가 아니기 때문에 민속학적, 음악적, 무용적 속성을 배제한 채로는 민요

---

하였다. 고정옥은 쪽수를 표시하지 않고 각 장의 첫 면(책으로 제본한 부분에서는 왼쪽 면)에만 장수를 표시하였다.

8) 김영희(2016a), 앞의 논문 참조.

를 문학적으로 다루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민요를 문학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민요에서 비문학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민요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민요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을 배제하는 것이기에 문학적 연구를 위해 비문학적 요소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모순된 진술이다.<sup>9)</sup>

그는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문학이란 '문자를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창작한 것'이며, 민요는 '본래 소리를 수단으로 한 미분화된 예술'이고 '집단이 공동 제작한 것'이기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문학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서술한다. 그래서 그는 민요가 '광의의 문학'에 속한다고 말한다. 민요의 비문학적 자질들은 곧 민요의 구술적이고 연행적인 측면을 가리키는데 그는 민요의 이런 자질들에 주목하면서도 민요를 '조선문학'을 구성하는 주요 대상이자 원류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이는 1960년대 초 북한에서 저술한 그의 논문과 책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는 관점이다. 그러나 1960년대 초의 서술에서는 민요를 문학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의 관점이 한층 강화된다.

그는 1962년에 발표한 『조선구전문학연구』에서 '구전문학'의 본질로 '인민성', '집체성', '구두성' 등을 언급하였다. '집체성'과 '구두성'이 민요의 비문학적 자질에 관한 것이라면 '인민성'은 민요의 연행 및 전승 주체에

9) 고정옥의 이와 같은 모순은 그가 민요와 같은 '구전문학'의 주요 대상들을 문학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민속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조명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습득한 학문적 방법론의 요체에서 말미암은 것이되, '구전문학'의 문학적 속성과 비문학적 속성을 어떻게 규명해야 할지 그의 입장이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단계였음을 암시한다. 고정옥이 논문 말미에 작성한 민요 수집과 정리 시 필요한 주의사항들은 그가 민요를 어떤 개념과 범주로 사유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민요를 문학적인 대상으로 간주하여 형식과 내용 등의 여러 요소를 점검하면서도 민속학적 관점에서 음악, 무용, 행사, 노동, 생활도구 등의 요소를 간과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김영희(2016a), 앞의 논문 참조)

관한 개념으로 주제 비평의 주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음악적이고 무용적인 속성 등을 언급하면서 ‘구두성’에 대한 단초를, ‘광의의 문학’으로 범주화함으로써 ‘문학성’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는 한편, 고정옥은 졸업논문 후반(하권)에서 민요를 ‘피지배계급의 노래’로 천명함으로써 ‘인민성’의 단초를 노정하였다. 그는 논문의 전편(상권) ‘제3장 민요의 개념’에서도 민요의 연행 및 전승의 주체로서 ‘민(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개(個)에 대한 민. 개인 대 집단이다. 민요는 어떤 한 개인이 실내에 들어앉아 심사숙고한 끝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집단이 집단적 노동, 집단적 제의, 집단적 유락을 행할 때 들에서 공동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중략 2. 군, 관에 대한 민. 민요의 소유자는 민중이지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시조와 민요는 이 대립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조선문학의 두 시가 장르로, 전자가 충효 등 지배계급의 윤리 관념을 의식적으로 노래하면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생활감정을 분출시키고, 정쟁으로 인해 험악해진 속세에서 도피하려는 바람을 도처에 드러내는 데 반해, 후자는 힘든 노동, 본능적인 육체에 대한 애정, 적나라한 동물적 욕망, 양반에 대한 야유나 선망을 소박하게 읊조린다. 3. 국(國)에 대한 민. 정치적, 국가적 세력 범위가 아니라 혈통적인 민족의 정신이 민요의 단위를 형성한다. -중략 조선은 이제까지 지나를 사상적, 정치적으로 그 종주국으로 삼아 추앙해 왔다. 지금 조선인은 아마도 민족과 동등한 일본국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민요라는 세계민요 속의 일개 단위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조선민족이라는 하나의 피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민요는 문학이나 노래처럼 문자에 의해 고정되는 경우가 없다.<sup>10)</sup> 우연히 어떤 개인이 그것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민요는 그것에 고착되지 않고 스스로의 성능대로 발전해 간다. 민요는 종적으로, 역사적으로 전승되는 한편

10) 이 문장 바로 앞에 색연필로 된 ‘◎’표시가 있다. 졸업논문의 독자인 일본인 교수가 표시한 방점으로 추측된다.

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전파된다. 이런 까닭에 특정 시대 특정 민요를 포착할 때 그것은 실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온 무수한 민중의, 무수한 시대사상이나 지방사상, 또한 시대언어 및 방언에 의한 번역을 거쳐 온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중략-

이렇게 '부모에서 그 자식에게로' 무한한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현존 조선 민요는 어느 편을 보아도 그 가운데 태고의 우리 선조 대대의 남녀의 사상과, 생활과, 감정과, 정서와, 상상력과, 미관(美觀)이 집적(集積)되어 결정(結晶)을 이룬 결과가 아닌 것이 없다. 설령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 조상의 우열한 일면, 무기력한 일면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에 우리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sup>11)</sup>

위의 글에서 고정옥은 민요를 정의할 때 '민(民)'의 개념을 먼저 규정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우선적인 문제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그에게 '민(民)'은 개인이 아닌 집단이며, 이 집단은 생활과 노동과 여가 활동을 공유하는 공동체다. 또한 그에게 '민(民)'은 지배계급을 타자로 하는 피지배계급이며, 국가와는 다른 혈통적 단위의 집단이다. 그는 조선인이 일본국민이라고 밝히면서도 조선 민족 고유의 혈통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특성이 민요를 통해 드러난다고 서술한다.

또한 그는 '민(民)'의 개념을 규정한 후 구전(口傳)의 적층성을 향해 나아간다. 민요는 구전되기에 어딘가에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지리적으로 전파되어 나간다. 그는 랄프 월리엄스의 문구를 인용하여 민요의 연행과 전승에 대해 “그것은 숲의 수목과 같은 것이다. 그 뿌리는 깊이 과거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부단히 새로운 가치를 뺏고 새로운 잎을 틔워 새로운 과실을 맺는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그 스스로 그것을 꾸민다. 하지만 (그 근본정신—말하자면 뿌리 부분에는) 결

11) 고정옥, 『조선의 민요에 대하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논문 상권, 15a~24a.

코 하나도 보낼 수도, 덜어낼 수도 없다. 그것은 **공동의 줄기에서 개성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It is an indivical flowering on a common stem.)”라고 언급한다.<sup>12)</sup> 또 소문이 퍼져나가는 현상에 빗대어 이야기 (story)의 구전 과정을 언급한 윌리엄스의 견해를 다시 인용하여 “소문이 난 사실, 또는 일화가 퍼질 경우 그것은 다양하게 변형된 형식으로 즉시 유포된다. 그 ‘story’를 반복하는 각 개인이 **올바르게 반복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각각의 노래하는 사람들이 만약 자신의 예술적 기호에만 구속된다면 노래는 구전 되면서 얼마나 더 많이 변화해 나갈까.”라고 서술하였다. 그는 민요가 ‘다양한 인구나 다양한 세대를 통과하는 사이에 점차 자연스럽게 발달’한다고 말하며 이 과정을 바람에 비유한 곱말약의 표현(“古人稱民間的歌謠叫着風, 真是把歌謠的性質表示得恰好了”<sup>13)</sup>)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동의 줄기에서 개성의 꽃을 피우는 것’처럼 민요는 전승의 지속적 전통 위에 있으면서도 개별 연행을 통해 다른 차이들을 빚어낸다. 전통에 엄격한 태도로 지속성에 견인되는 연행을 보이곤 할 때조차 연행은 개별적 차이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요의 구전적 특성이 지속과 변화의 지향을 동시에 빚어낸다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간과한다. 고정옥이 민요를 문학으로 다루면서도 연행과 전승의 측면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민요의 연행 및 전승 주체인 ‘民’에 주목하면서 이를 민요의 적층성으로 체계화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중에 그가 민요 등을 ‘구전문학’으로 다루면서 ‘인민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구두성’과 ‘집체성’의 개념을 이론화하려 했던 근거가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12) 고정옥은 이 대목에 “前掲『대영백과사전』 제9권 448쪽, 『민요』 항-Ralph Vaughan Williams 집필-참조”라는 주를 달아 두었다.

13) 고정옥은 이 대목에 “何中孚 編『民謠集』序”라는 주를 달아 두었다.

“민요는 개인의 소산이 아니라 민중 또는 집단의 소산이다. 또한 그들은 민요를 보존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시 개조하고 발전시켰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동시에 창조해왔다.”<sup>14)</sup>

“민요는 한편 피지배계급의 노래이다. 이런 의미로 민요에 나타난 지배계급에 대한 태도는 중시되어야 한다. 조선의 양반·부자·지식계급이 상민·빈자·무식계급을 압박·착취한 것은 서양의 봉건시대 귀족이 농민에 대해 했던 것들보다도, 일본 무사도 시대 무사가 마을사람들에 대해 행한 것들보다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민(常民)의 양반에 대한 기대는 적어도 민요에 관한 한, 계급타과 후 양반을 다소 야유하는 동요를 제외하면 대부분 선망·외포(畏怖)에 가깝다. 그렇게 된 까닭에는 위정자의 가혹한 탄압이라는 이유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앞서 설명했듯이 무사안일주의의 무기력한 체관(諦觀)-숙명관이라는 하나의 민족적 자질이 그들 스스로를 순종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내가 보기에는, 고구려 이전에는 그 정복적 기개와 고유문화의 융성함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퇴영적(退嬰的) 정신은 아직 짝이 들지 않았다. -중략- 그것이 신라시대 이래의 선불유(仙佛儒)의 지나(支那) 사상에 의해 민족적 '생의(生意)'가 거세되어, 모두 강국의 정치적·군사적 압박에 의해 민족적 '신념(信念)'을 잃었던 것이다. 또 민족적 '단결정신'을 산일(散逸)시켜 민족성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주자학과의 공연(共演)에 의한 이조(李朝)의 정권상 대연극이 이처럼 집적된 숙명론적·민족적 결점에 최후의 박차를 가하자, 숙명관은 여기서 무상(無常)·도피(逃避)·취락(醉樂)(양반)과 무상·자포자기(상민)라는 현실적 양상을 보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15)</sup>

고정옥은 졸업논문에서 민요가 집단의 산물이며, 피지배계급의 노래라

14) 고정옥, 『조선의 민요에 대하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논문 상권, 25a~25b.

15) 고정옥, 『조선의 민요에 대하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논문 하권, 211a~214a.

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조선민족의 노래로서 조선민요는 조선의 민족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에게 민요를 통해 드러난 조선의 ‘민(民)’은 이후에 그가 정의하는 ‘인민(人民)’과는 다른 정치적 성향을 지닌다. 졸업논문에서 그는 조선의 ‘민(民)’이 지배계급에 대한 선망에 젖어 있으며 체념적일 뿐 아니라 무사안일주의와 숙명론적 세계관에 고착된 존재라고 말한다. 과거의 기개와 생기를 잃고 현실도피적이고 무기력한 체념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조선의 ‘민(民)’은 민족적 집단인 동시에 계급적 측면에서는 아직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않은, 추상적이고 미분화적 관념의 피지배 대중이다.

고정옥은 경성제대 학부 졸업논문을 수정하여 출판한 수선사 출판본 『조선민요연구』(1949)에서 민요가 문학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며 무용도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문학이나 음악이나 무용은 개인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졸업논문에서와 달리 이 책에서 민요는 오직 민속학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연달아 민속학, 곧 ‘folklore’를 정의하며 이를 ‘민간의 지식’이라는 말로 소개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민간의 지식으로서 민속의 의미를, ‘저문화 민속간에 현행되고 있으며 혹은 개화 민족 중의 몽매한 인민 사이에 보존되어 있는 전통적인 信仰, 慣習, 說話, 歌謠 及 俚諺을 총괄하고 포함하는 범칭’으로 기술하였다.<sup>16)</sup>

그러나 이 글에서 고정옥은 졸업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민(民)을, 개인

16)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6~7쪽. 그가 여기서 민요에 내포된 문학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책의 서두 부분에서 민요에 대한 연구가 어떤 학문적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스스로 묻고 이에 대해 명확히 문학이 아닌, 민속학이라고 답했다. 다만 민요를 기록한 글이나 민요의 말 등에서 문학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문학적 관점에서 민요를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 등은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에 대한 집단, 군(君)이나 관(官)에 대한 민(民), 국(國)에 대한 민(民)으로 동일하게 정의한다. 다만 조선인이 일본국민이지만 조선민족이라고 말하거나 민(民)의 속성을 조선 민족성의 문제로 서술하는 대목은 모두 생략되어 있다. 구전의 속성에 대한 그의 인식 또한 졸업논문에서와 같은 형태로 동일하게 반복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민(民)은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로서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그는 민요의 리듬이 민(民)의 육체와 생활에 스며든 노동의 리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민요가 피지배계급의 노래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그는 조선민요의 특질을 언급하는 7장에서도 졸업논문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요소들을 모두 조선 인민의 긍정적 자질로 재기술하는 면모를 드러낸다.<sup>17)</sup> 민요에 나타나는 해학성, 풍류를 즐기는 태도,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부요(婦謠)의 풍부한 정감, 노동의 리듬에서 비롯된 형식적 자질 등은<sup>18)</sup> 모두 집단의 노래이자, 피지배계급의 노래이며, 민족의 노래인 민요의, 이른바 '인민적(人民的)' 속성을 긍정적으로 가치 평가하는 태도의 단초를 보여주는 표현들이다. 이후 1960년대 초 북한에서 고정옥이 민요를 중심으로 구전문학의 '인민성'을 규정하는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하는 토대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정옥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1960년대 초 북한 '구전문학'의 '인민성'에 대한 개념 규정은 이처럼 1930년대 경성제대 조선어문학 강좌의 교육적 성과물이었던 학부 졸업논문과 1949년 수선사에서 발간한 『조선민요연구』 등의 서술에서 계보학적 근원을 찾을 수 있다.

17) 김영희(2016a), 앞의 논문 참조.

18) 고정옥, 앞의 책, 497~505쪽.

### 3. ‘인민창작’이라는 개념의 대두

북한 문학 연구에서 ‘인민성’의 개념이 강력하게 대두된 것은 1950년대 후반으로 보인다. 그 전에도 조선문학을 혁명적 전통을 계승한 ‘인민의 문학’으로 규정하려 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학문적 체계성에 입각하여 조선문학의 하위 개념 및 범주를 구성하고 서술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본격화된 것은 1950년대 후반 이후였다. ‘인민 구두’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57년 무렵이다. 1957년 발행 2년차를 맞이한 『조선어문』에 실린 「인민 경제 발전 제1차 5개년 계획과 언어 문학 연구소의 발전 전망」<sup>19)</sup>이라는 글에는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의 10년 과제와 전망이 드러나 있는데 여기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민 구두 설화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언급되고 있다.<sup>20)</sup>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대 초반까지 『조선어문』 소재 논문 목차를 보면 당시 문학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맑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 입각하여 ‘조선 고전’의 가치를 발견하고 ‘조선문학’의 정체성과 학문적 계보를 밝히는 동시에 이를 맑스-레닌주의 문예이론 및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인민의 문학’으로 재정립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이를 위해 북한 문학 연구자들은 이론적 토대를 갖출 필요가 있었는데 이때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소비에트 문예이론이었다.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목표가 ‘우리 나라 과학 문화의 우수한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할 때, ‘변증법적 유물론의 철저한 체득과 함께

19) 『조선어문』 1957년 제2집, 과학원, 1957, 1~3쪽.

20) 위의 글, 2~3쪽.

21) 해당 글에서 문학 분야의 핵심 연구 과제는 ‘조선 문학의 사조와 장르에 대한 연구’, ‘조선 문학과 외국 문학과의 련계에 대한 사적 고찰’, ‘조선 로동당의 문예 정책’,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발생과 발전에 관한 연구’로 갈무리되었다.

자만 자족하여 낡은 것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과학 특히 소련의 선진 과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구, 섭취'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2)</sup> 이들이 추구한 '인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은 맑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 충실하되 인민의 '혁명적 전망', 혹은 '유토피아적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문예미학을 성취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조선의 인민' 고유의 문학적 자질들을 담지하는 것이어야 했다.

'인민성'의 개념이 북한 학계에서 더욱 두드러진 시기는 1960년 무렵이었다. 『조선어문』 1960년 제1집에 실린 『새해-1960년을 맞는 어문학자들의 과업』<sup>23)</sup>이라는 글을 보면 해당 시기 학술 문예 사업의 목표가 '조선어'와 '조선문학' 연구에서 '민족 문화 유산'을 계승하되 '공산주의 사상 교양'으로서의 성격이나 '혁명적 전통'의 계보, '인민성'의 개념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조선어문』에 실린 언어학 관련 논문들에서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물론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용어를 '인민'들이 사용하기 쉽고 '인민적 특성'을 드러내기 좋은 말로 바꾸거나 정리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sup>24)</sup> 문학 연구에서도 고전 번역과 문예사조 기술, 문학사 구성 등이 모두 인민의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인민을 위하는, 인민의 교양을 지향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태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고전시가, 패설, 민요, 가면극 등의 거의 모든 과

22) 『조선어문』 1957년 제2집, 과학원, 1957, 2쪽.

23) 『조선어문』 1960년 제1집, 과학원, 1960, 1~2쪽.

24) 1960년 『조선어문』 제1집에 실린 리근영의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김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한 조선어의 풍부한 인민적 성격』(『조선어문』 1960년 제1집, 과학원, 1960, 3~19쪽.)은 조선어의 인민성이 어떤 혁명적 전통에서 유래한 것인지 밝힌 글이다. 1960년 제2호에 실린 『글의 면모를 일신하자』(『조선어문』 1960년 제2집, 과학원, 1960, 7~10쪽.)는 다양한 조선어 어휘를 인민들이 사용하기 쉽고 인민성이 드러나는 어휘로 전환하는, 인민 중심의 언어 문화 운동을 제안한 글이다.

거 문화 유산에 대해 그 안에 내재한 ‘인민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논문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민성 발견의 원류, 혹은 원형으로 항일무장투쟁기의 ‘구전문학’이 ‘인민창작’의 이름으로 소환되며 이것은 곧 ‘조선문학’의 ‘혁명적 전통’과 이념적 정체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조선 인민의 풍부한 예술적 재능이 집체적으로 발현된 인민 창작의 분야에서 연극은 오늘날의 연극의 개념과는 판이한 특수한 자기 성격을 보이고 있다. -중략- 속담, 수수께끼 같은 것은 일반 언어와도 비슷하게 그 창조-전승자는 문’자 그대로 인민 전체이다. 우리는 물론 이를테면 작가들에 의해서 창조된 속담들이 구두화해서 구전 속담 속에 흘러 들어 간 사실을 인민 창작과 문학과의 교호 작용의 관점에서 중요시한다. 그러나 그 량은 속담 전체로 보아 실지에 있어 적은 부분에 불과하며 더욱이 그 전승은 전 인민적이다.”<sup>25)</sup>

1957년에 고정옥이 인형극, 가면극 등 ‘조선 민간극’에 대해 서술한 이 글은 1950년대 후반부터 북한 학계에서 ‘인민창작’이라는 개념이 활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고정옥은 이 글에서 ‘인민창작’을 ‘문학’과는 다른 개념으로 서술한다. 여기서 그는 ‘인민창작’이 문학이 아니라고 선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가면극이 설화, 소설, 민요 등과는 달리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기보다는 비언어적 요소와 문화적 맥락 등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에 주목하여, 이를 ‘문학’은 아니지만 ‘문학’과 교호하는 ‘인민창작’으로 규정한다. 기록이 아닌 구술 연행에 의존하는 대상들을 ‘인민창작’으로 범주화한 것인데 여기서 ‘인민창작’은 문학의 하위 범주가 아니며 이에 따라 ‘구전문학’과 등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도 않는다. 특히 주목할 것은

25) 고정옥, 『조선 민간극 연구 서설』, 『조선어문』 1957년 제3집, 과학원, 1957, 31~47쪽.

‘설화’나 ‘민요’가 문학에 가까운 대상 범주인 데 반해 ‘가면극’이나 ‘속담’, ‘수수께끼’ 등은 상대적으로 문학적 성향이 약하고 이런 까닭으로 ‘인민창작’에 가까운 대상이라는 인식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또한 이 글은 ‘인민에 의한 창작’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구전이야기, 민요, 가면극 등의 연행 및 전승 주체가 각각의 경우 어떻게 서로 다른 ‘인민’으로 구체화되는지, 또 이들의 ‘창작’이 얼마나 전문적이거나 비전문적인지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갈래를 대조하기도 하였다.

“과거의 조선 인민들이 오랜 생활 과정과 현대 근로 인민들의 집단 생활 속에서 인민들의 집체적인 문학적 재능에 의하여 창조 전승되어 왔으며 또 부단히 창조 전승 보급되면서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인민 창작 가운데서 수수께끼는 그의 독자적 표현 방식과 현실적 기능, 그리고 예술적 특성으로써 자기를 다른 장르의 인민 창작과 확연히 구획짓고 있다. 적지 않은 수수께끼는 서사적 인민 창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략- 수수께끼는 자기의 독자적 표현 방식을 가진 인민 창작이다. 인민 창작에도 문학의 세 개 기본 방식에 대응하는 장르가 있다. 설화, 민요, 민간극 등은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나 일련의 인민 창작 장르들, 즉 판소리, 속담 등은 문학의 세 개의 기본 방식의 그 어느 것에도 소속시킬 수가 없다. 수수께끼는 바로 판소리, 속담 등과 더불어 문학의 어떤 형태에도 대응하지 않는, 인민 창작에 고유하며 특유한 자기의 표현 방식을 가진 인민 창작의 한 장르이다.”<sup>26)</sup>

1960년 『조선어문』 제1집과 제2집에 실린 「조선의 수수께끼에 대하여」<sup>27)</sup>라는 글에서 고정옥은 ‘인민창작’의 하위 갈래를 ‘설화’, ‘민요’, ‘민간극’,

26) 위의 글, 72~73쪽.

27) 『조선어문』 1960년 제1집, 과학원, 1960, 72~87쪽; 『조선어문』 1960년 제2집, 과학원, 1960, 71~77쪽.

‘판소리’, ‘속담’, ‘수수께끼’로 가설한다. 그리고 ‘설화’, ‘민요’, ‘민간극’이 각각 대응하는 문학의 기본 형식에 대응하는 갈래인 데 반해 ‘판소리’, ‘속담’, ‘수수께끼’는 문학에 대응하는 개념이 없는 독자적인 ‘인민창작’의 갈래라고 밝힌다. 앞선 논문과 이 논문의 서술 내용을 고찰할 때 해당 시기 고정옥을 비롯한 북한 구전문학 연구자들은 ‘인민창작’과 ‘구전문학’의 개념, 혹은 ‘문학’과 ‘인민창작’ 사이의 관계 문제에 고심하면서도 아직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순적 서술이 다수 발견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 문학 및 문학사 구성의 관점에서 이들 ‘인민창작’ 갈래들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민창작’이 ‘문학’의 하위 개념이거나 ‘구전문학’과 지시대상이 같은 범주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쟁점들은 ‘인민창작’을 민속학적 연구대상에서 문학적 연구대상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직면해야 했던 문제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구전문학’을 북한 문학의 하위 범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으며, ‘구전문학’의 인민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간과하거나 축소해서 다룰 수 없는 문제였다.

이때 ‘인민창작’이라는 개념 속에 등장한 ‘인민’은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에서 기술된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people)’에 가깝다기보다는 ‘인민의 지혜’로서 ‘folklore’를 정의할 때의 ‘인민(folk)’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정치적 의미의 ‘인민성’이 결부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정옥의 서술에서는 ‘인민’이나 ‘인민성’의 사상적 내용과 성격 구명보다는 인민 ‘창작’과 구전 ‘문학’ 사이의 간격을 해소하는 문제가 더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것은 ‘문학’으로 정의하거나 ‘문학’에 완전히 포함시키기 어려운 대상들에 대한 정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민’과 ‘인민성’에 대한 그의 관념은 1960년대 접어들

면서 50년대 후반과는 다른 양상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는 앞서 언급한 민간극에 대한 서술에서보다 1960년에 기술된 수수께끼 관련 논문에서 정치적 의미의 '인민성'을 발견하려는 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조선어문』 1960년 제2집에 연속 게재한 같은 제목의 글에서 말미에 “수수께끼는 오랜 옛날부터 인민들의 상상력과 추리력 및 판단력을 배양하는 언어-예술적 수단으로서 인민들에게 복무하여 온 조선 인민 구두 창작의 한 장르이다. 수수께끼가 버러지는 매개 마당에서는 무엇보다도 인민적 기지가 련속적으로 발현되며 기지의 발현은 언제나 균중적 웃음을 동반한다.”고 서술하기도 하였다.<sup>28)</sup>

『조선어문』 1960년 제1집에 실린 현중호의 『시가사 연구의 기초로서의 작시법의 제 요소에 관한 고찰(1)』<sup>29)</sup>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우선 고전시가로부터 이어지는 시가사 연구를 통해 ‘조선다운’ 동시에 ‘인민적인’ 작시법을 추출하여 구성하려 했다는 점과 이와 같은 작시법 추출의 원형을 ‘구전 가요’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문학계에서 인민성을 소환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문학사의 ‘인민적 전통’을 구축하고 문학사의 원형을 ‘인민성’의 관점에서 추출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인민문학’의 계보를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향후 새롭게 만들어갈 ‘인민 창작’과 ‘인민 교양’의 토대를 쌓으려 했다는 사실 또한 유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인민 고유의 문학이나 창작의 원형을 구전 문화 유산에서 찾으려 했다는 사실이다.

현중호는 이 글에서 아리랑이나 기타 지방 민요 등을 예로 들어 인민 구전 가요의 작시 체계를 변별하고 이를 새로운 인민 창작의 원천으로 삼

28) 『조선어문』 1960년 제2집, 과학원, 1960, 76쪽.

29) 『조선어문』 1960년 제1집, 과학원, 1960, 57~71쪽.

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민 구전 가요는 조선 인민 고유의 사상과 감정, 억양을 드러내므로, “작가들이 인민 문학 그 중에도 특히 민요, 구전 문학 등을 연구하여 광범히 리용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0)</sup> 이에 따라 바로 연이어 게재된 고정옥의 수수께끼 관련 논문은 수수께끼가 ‘조선 인민’의 지혜와 정서, 지식 교양과 사상적 관념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수께끼에서 새로운 ‘인민 창작’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어문』 1960년 제1집에 실린 『학계 소식』에는 언어문학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각종 발표회와 토론회 주제가 개괄되어 있는데, 이 글에 보고된 모든 발표회와 학술행사는 항일무장투쟁기 문학과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하나 이상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문학 예술의 당성과 인민성’, 그리고 ‘민족적 특성과 문학의 대중성’, ‘고전 계승과 선진 문화 섭취’ 등이다. 그리고 항일무장투쟁기 혁명 문학의 사상 예술적 특질을 ‘애국주의 사상, 국제주의 사상, 조국 광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확신, 풍부한 혁명적 량만성의 체현, 강력한 전투적 호소성과 선동성’으로 정리하였다.<sup>31)</sup> 이는 ‘조선문학’ 전통의 ‘인민성’을 강화하는 것이 ‘조선문학’의 혁명적 전통을 올곧게 세우는 데 있으며, 이 전통은 바로 전근대 시기 반외세 반봉건 투쟁기 문학에서부터 항일무장투쟁기 문학으로 이어져왔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태도는 곧 북한 문학과 문학사에서 부르주아적, 봉건적 잔재를 배제하고 ‘제국’이나 ‘식민’의 흔적을 지워, 단절없이 이어진 문학적 전

30) 당시 김일성의 교시는 “우리의 고전적 문화 유산 가운데서 특히 인민 구전 가요들을 널리 계승하고 발전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조선어문』 1960년 제1집, 1960, 71쪽.)

31) 『조선어문』 1960년 제1집, 1960, 88쪽.

통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혁명의 이상과 인민적 가치에 위반되지 않는 문학적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의도의 소산으로 보인다. 1960년에 6번 발행된 『조선어문』에 실린 문학 관련 논문들 중에는<sup>32)</sup> 조선 문학에서 소설이 언제 발생하였는가를 묻거나 향가, 고려가요, 시조와 가사로 이어지는 시가문학사의 일관된 전통을 기술하거나 조선문학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혹은 사실주의가 언제 어떤 양태로 발생하여 발전하였는가를 탐구하는 주제들이 다수 눈에 띈다.(아래 표의 목차 참조) 이는 문학사의 단절면을 지우고 문학사의 지속적 전통을 구축하되 그 전개 과정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기술하는 태도와 연관이 있다. 여기에 문학사적 전통의 원천이자 원형으로서 '구전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논문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연구 경향들은 모두 '인민문학'으로서 '조선문학(북한 문학)'의 정체를 밝히고 문학사적 전통을 새로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활동의 성과들이었다.

『조선어문』 1960년에 발행한 제1집부터 제6집 사이 목차 가운데 문학 관련 논문의 제목들:	
제1집	시가사 연구의 기초로서의 작시법의 제 요소에 관한 고찰(1) - 현종호
	조선의 수수께끼에 대하여 - 고정옥
제2집	시가사 연구의 기초로서의 작시법의 제 요소에 관한 고찰(2) - 현종호
	미제에 복무하는 남조선의 반동 문예학 - 한룡옥
	조선의 수수께끼에 대하여 - 고정옥
	서평: 『조선문학통사』(상)에 대하여
	서평: 『조선문학통사』(하)에 대하여
제3집	조선 소설 발생 과정에서의 패설 문학의 위치 - 주유광
	토론: 조선에서의 사실주의 발생 시기 문제 - 리용수
제4집	

32) 『조선어문』 1960년 제2집 맨 뒤에 수록된 광고를 보면 1961년부터는 『조선어문』을 『조선어학』과 『문학연구』로 나누어 발행하고 각각 연 4회 발행한다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해방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발전과 혁신 - 한중모 토론: 조선 고전 문학에서의 사실주의의 발전 단계들 - 고정옥 제5집 해방 후 문학 예술에서 레닌적 당성 원칙을 위한 당의 투쟁 - 최탁호 해방 후 15년 간의 조선 문예학-문학적 연구 및 고전 계승 사업을 중심으로 - 고정옥 토론: 조선 문학에서의 사실주의 형성 시기 문제에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논함 - 한룡옥 제6집 판소리 문학의 형태적 특징 - 권택무 우리 나라에서 사실주의 발생 논의에 대한 ○○의 의견 - 윤세평 자료: 중국 문학사 시론
---

『조선어문』 1960년 제3집에 실린 주유광의 「조선 소설 발생 과정에서의 패설 문학의 위치」<sup>33)</sup>는 당시 문학연구자들의 관심이 문학사의 단절면을 지우고 각 시기가 계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학사의 지속적 전통을 발굴하는 데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설화 문학에서 소설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에 패설이 존재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단절없이 지속되는 서사문학사를 가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서사의 주요 양식들을, 진화론적으로 진행되는 연속적인 각 단계에 대응시키는 방식의 서술 형태를 보여준다. 이것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관심들이 모여서 드러난 성과가 아니라 당이 제안하고 과학원이 주도한 연구의 결과였다. 이 논문을 쓴 주유광은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원에 근무하는 중국인 유학생이었는데 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소속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연구 경향들이 일종의 학문 공동체 내부의 동질화된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조선어문』 1960년 제5집에 실린 고정옥의 「해방 후 15년간의 조선 문예학」<sup>34)</sup>은 45년 해방 이후 1960년까지 북한에서 이루어진 조선문학 연구의 대체적인 경향을 역사적으로 서술한 글로 이와 같은 정황을 여실히 보

33) 『조선어문』 1960년 제3집, 과학원, 1960, 30~44쪽.  
 34) 고정옥, 「해방 후 15년간의 조선 문예학」, 『조선어문』 1960년 제5집, 1960, 96~112쪽.

여준다. 고정옥의 이 글은 해방 후 북한 문학 연구의 주요 과제가 무엇이었고 시기별로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에 따르면 1957년에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 이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959년부터 1960년 사이에 조선문학사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제 발생과 발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는 주로 소비에트 문예이론에 빚진 바 컸는데 “쏘베트 문예학 성과”들이 다수 번역, 출간되었고<sup>35)</sup> ‘구라파 사실주의’나 ‘로씨야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관한 연구가 과학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sup>36)</sup>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작업들이 모두 인민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의 정체를 밝히고 전통을 재정립하려는 목적의식 아래 수행된 일들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앞서 수수께끼나 민간극 연구에서 보여준 ‘인민창작’에서의 ‘인민’ 혹은 ‘인민성’과는 다소 맥락을 달리한다. 앞서 언급한 ‘인민창작’에서 ‘인민’의 의미는 피지배계급이나 근로인민대중 다수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는 구전문학의 연행 및 전승 주체로서 ‘folk’를 가리키는 ‘인민’의 의미가 더 강했다. 그러나 문학사의 지속적인 전통이나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전통을 규명하는 일은 ‘조선문학’ 및 ‘조선문학사’ 구축 과정에서 소환된 ‘인민성’의 개념이 좀더 사회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로 확장, 혹은 심화되었음을 암시한다. 1950년대가 다수의 개념들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론되고 경합되는 시기였다면 1960년대 초는 ‘인민성’의 개념이 좀더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구체화되고 확고해지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sup>37)</sup>

35) 고정옥, 위의 글, 105쪽.

36) 『학계 소식』, 『조선어문』 1960년 제2집, 과학원, 1960, 85~86쪽.

37) 김성보는 1950년대가 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소속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한 논쟁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sup>38)</sup> 이후 1956년 10월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조선작가동맹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창작의 기본 방향으로 하여 ‘민족문화유산의 진보적 전통과 카프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공식적인 문예미학이론으로 천명되었으며 이것이 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문학사 구성 및 문학 이론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39)</sup> 그런데 이때까지 ‘조선문학’ 내 ‘인민성’의 전통은

---

의 시대였다면 60년대 들어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급격히 반감했다고 말한다. 1950년대 중반 북한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장만큼 주민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못해 공산품이나 식료품들을 제대로 배급받지 못한 채 물가만 높아져 도시 근로자들의 생활고가 가중되었고, 경제생활 수준이 악화되어 인민대중의 수요가 잇따라 발생했을 뿐 아니라 지방 하부 단위에서는 정책 집행이 마비될 정도로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소련이나 중국과의 갈등도 있었다. 또 정치적으로 김일성이 주도권을 장악하지 않은 단계에서 1956년 전원회의 사건과 같은 반김일성 정치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는 오히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이후 종파투쟁 등을 통해 김일성 중심의 통치 질서와 북한 사회 내부의 동질화 경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종파투쟁으로 2백 명 이상 체포되었으며 남로당계, 연안 독립동맹계, 소련계 등이 모두 몰락하였다. 1957년 이후 경제가 다소 안정되고, 반종파투쟁이 확대된 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문학계 내부에서도 ‘조선문학’으로 소환된 인민성의 사상적, 정치적 의미가 한층 강화되고 이에 따라 연구 경향 역시 어느 정도 동질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는 이를 인민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급속하게 소멸해간 양상으로 파악하였다.(김성보, 『북한의 역사 1』, 역사비평사, 2014, 194~204쪽.) 이 과정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 세력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획득하고 문학 연구에서 호출되었던 ‘인민성’ 역시 항일무장투쟁기 혁명 문학의 전통 속에서 재기술되기에 이르렀다. 역사학계에서도 문학사 서술 및 연구에서 나타난 경향들이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1957년부터 1962년 사이에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조선 근세사 시대구분 논쟁이 사회주의 이행 과정에서의 특수성을 해명하는 문제와 연결된 형태로 한층 강화되었다.(김성보, 위의 책, 231쪽.)

38) 위 각주 내용 참조. 반김일성 정치 세력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가시화된 사건이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김일성과 그를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 세력이 북한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문학/예술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반종파투쟁이 벌어졌는데 카프 출신 문인과 문학연구자들 다수가 수정주의자, 사대주의자, 북고주의자 등으로 몰려 정치적으로 숙청되었다.

아직 항일무장투쟁기 혁명 문학의 전통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카프 문학의 전통이 이와 같은 인민성에 더 닿아 있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도식주의 논쟁 이후 문학계에서 맑스-레닌주의의 교조적 적용이나 민족 문화 유산의 낭만적 강조보다는 한국 문학의 전통 내에서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문학' 고유의 인민적 전통을 맑스-레닌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학의 전통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재발견하는 데 연구 경향이 집중되면서 항일무장투쟁기 문학이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북한 사회 내부에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었다. 특히 1960년에 김일성은 「천리마 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라는 연설을 통해 문학 예술이 천리마 시대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 투쟁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과 투쟁을 다루는 작품, 항일무장투쟁의 혁명 전통을 형상화한 작품이 '조선문학' 전통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sup>40)</sup> 1960년에 창간된 『인민창작』에서 항일무장투쟁기 민요와 구전이야기를 '인민창작'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고정옥은 '조선 문예학'이 직면한 시대적 조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영웅적 쏘련 군대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기반에서 벗어난 후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올바른 과학 문화 정책을 의해서 우리 인민의 창조적 능력과 과학적 재능은 전면

39) 김성보, 위의 책, 238~239쪽.

40) 고정옥, 위의 글, 239쪽.

적으로 개화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중략- 해방 후 우리 문예학의 급속한 발전은 봉건적 부르주아적 제도에 대한 인민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제도의 비할 바 없는 우월성으로써만 설명된다. -중략- 해방 후 우리 문예학은 자유롭고 행복한 새 환경 속에서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발전하여 왔으며, 문학에 관한 레닌적 당성 원칙과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김일성 원수의 제반 교시를 근간으로 해서 전개된 조선 노동당의 시종일관 ○○한 문예 정책에 튼튼히 서서 과거의 선진적 문예학의 전통-지난 세기들에서 발생한 사실주의 시론(時論)들과 해방 전 20~30년대의 프로레타리아 문학 평론의 합법칙적 계승자로서 출현했으며, 그의 철저한 혁신자로서 부단히 전진하여 왔다.”<sup>41)</sup>

그는 ‘인민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을,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줄기차게 싸워 온 영광스러운 문학의 력사’로 규정하였다.<sup>42)</sup> ‘인민성’의 개념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훨씬 강화된 것은 그가 앞서 쓴 글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당파적 입장의 발언들이 이 글에서 자주 눈에 띄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립화 등이 고전문학 작품을 폄하한 것을 비난하고 과거 식민지 시기 지식인들이 근대적 관점에서 고전을 비판했던 것에 대해, ‘미국식 생활 양식이 골수에까지 스며 출향전이나 고려 시대 인민 가요 등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문학 없는 문학자’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미제의 식민지 노예 근성’으로 평가하고 ‘부르주아적 근성에 젖은 문학사가들’과 ‘리광수, 박종화, 김동인, 럽상섭 등 부르주아 작가들’, ‘권구현, 김화산 등 무정부주의자들’, ‘박영희 등의 수정주의자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왜곡한 김기진(변증법적 사실주의를 주장) 등’, ‘프로레타리아 문학을 와해 말살하는 길로 들어섰던 립화 등’,

41) 고정욱, 위의 글, 96쪽.

42) 고정욱, 위의 글, 96쪽.

‘그 밖의 사이비 맑스주의자, 수정주의자, 절충주의자, 기회주의자’ 등을 비판하는 가운데<sup>43)</sup> 조선문학 및 문학 연구의 ‘인민성’을 사상적 측면에서 더욱 당파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보인다.<sup>44)</sup>

그는 1946년 5월 24일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문화인, 예술인 대회에서 김일성이 한 연설 『문화와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를 언급하면서 ‘조선문학’이 인민을 위한 인민의 문학이 되어야 하는 정당성과 필연성을 누차 설득한다.<sup>45)</sup> 그는 1947년 3월 28일 당중앙위원회 제29차 상무위원회 결정 <북조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민족 문화 건설에 관하여>에 대해, “결정은 민족 문화의 성격을 조국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근로 인민 자신이 창조자로 되는 민주주의 민족 문화, 인민의 문화로 특징 짓고 있으며 문화의 확립한 세력 발전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 유산을 존중하며, 그것을 정당하게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쏘련을 비롯한 선진적 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섭렵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작가들은 고상한 민족적 특성과 민족적 향기가 반영된 우수한 형식의 창조에도 추동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sup>46)</sup>

또한 1951년 6월 30일 김일성의 교시에 대해서도, “숭고한 애국심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으로 대중을 교양하는 문체와 관련하여 또한 <위대한 예술의 창조자는 인민>이라는 것을 작가, 예술가들이 더욱 깊이 인식하

43) 그는 1956년의 사건을 통해 립화, 리태준, 김남천 등에게서 부르조아 사상의 여독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논평하고 박창욱, 기석복, 정률 등의 도식주의와 무갈등론도 비판하였다. 또한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 강좌 수강생이었던 조운제와 김태준 등에 대해서도 식민사관과 부르조아 사상에 젖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하였다.

44) 고정욱, 위의 글, 100쪽.

45) 고정욱, 위의 글, 101쪽.

46) 고정욱, 위의 글, 101쪽.

도록 깨우쳐 주고 있으며 **인민 창작** 특히는 **민요, 인민적 설화**(〈구전문학〉) 등을 연구하여 광범히 리용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실천적 과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 교시에는 복고주의적 편향들을 극복하고 **인민 창작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데 대한 민족 문화 발전의 기본** 로선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바 **낡은 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는 방법으로써도 인민 창작에서의 계승과 혁신은 수행된다**는 것까지 지적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문예학과 문학 예술이 **인민 창작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합법칙적 현상이다.**”라고 천명하기도 하였다.<sup>47)</sup>

그는 ‘고전문학’ 연구자답게 ‘조선문학’의 전통을 규명하는 작업을 ‘고전’을 계승하는 문제로 귀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는 1957년 ‘고전문학’의 연구 계승 및 보급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의 결정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진보적인 것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우리 나라의 아름답고 훌륭한 모든 것이 **인민의 소유물이 되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 복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각종 고소설 작품 해제와 복각, 고전 작품 번역과 주석, 『악학궤범』 등의 전적 해제와 번역, 한시 번역과 연구, 향가와 고려가요 해석 및 연구, 『조선구전문요선집』과 『조선속담집』, 『조선사화집』 등의 발간, 연암 박지원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48)</sup> 또한 이를 계기로 고전 민요, 설화, 속담, 민간극에 대한 관심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고 인민 창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서 조선 고대 설화에 대한 연구가 학위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했으며, 조선 민속탈놀이 연구나 그밖의 민속학적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었을 뿐 아니라<sup>49)</sup> 인민 창작에 대한 관심

47) 고정옥, 위의 글, 102쪽.

48) 고정옥, 위의 글, 108쪽.

이 현대 인민 창작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 항일무장투쟁기와 그 이후 인민 창작의 수집과 연구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up>50)</sup> 그는 구전문학 연구자로서 고전문학의 여러 하위 분과 중에서도 '구전문학', 곧 '인민창작'의 문학적 가치와 문학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선문학' 정체 규명 및 전통 확립 문제를 제기할하려 노력하였다.

고정옥의 이와 같은 관점, 그리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한층 그 의미가 확고해진 '인민성'의 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성과물은 1960년에 과학원에서 창간한 『인민창작』이라는 잡지였다.<sup>51)</sup> 이 잡지는 아예 '인민창작'이라는 개념 자체를 내세운 잡지답게 한용옥, 고정옥 등이 주도하여 '인민창작'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관한 과학원 소속 젊은 연구자들의 논쟁과 연구 성과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잡지는 '구전문학'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사업을 시행한 후 이 사업의 성과물을 갈무리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한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의 기관지로, 이 잡지의 발간 목적은 '혁명적 전통'과 '인민성'에 토대를 둔 문학사적 전통을 확립하고 '인민성'에 초점을 둔 문예 미학 정립 및 인민 교양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 이 잡지는 그다지 많은 자료를 수록하고 있지는 않은 데 이는 수집한 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인민창작'이라는 개념으로 묶은 대상 범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이 작품들에서 '인민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 규범적 서술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49) 당시 연구 성과들은 다양한 저널로 발표되었다. 1956년에 『조선어문』이 창간되었고, 그밖에 『문학예술』, 『력사과학』, 『문학신문』, 『구전문학』, 『조선예술』 등의 정기간행물이 꾸준히 발간되었다. 참고로 1956년에는 과학원 안에 남조선 문학과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두 분과가 창설되기도 하였다.

50) 고정옥, 위의 글, 102쪽과 110쪽.

51) 현재 남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민창작』은 1960년 제2집(1960년 9월 발행), 1960년 제3집(1960년 11월 발행), 1961년 제1집(1961년 4월 발행), 1961년 제2집(1961년 7월 발행), 1961년 제3집(1961년 11월)으로, 총 5권이다.

때문이다.

특히 『인민창작』을 통해 표면적으로 강조된 대상은 ‘해방 전후 군중 및 인민 가요’와 ‘항일무장투쟁기의 이야기’들이다. 이들 작품은 각 지방 전설과 야담, 민담, 동화, 민간극 등에 비해 훨씬 더 비중있게 다루어졌다.<sup>52)</sup> 『인민창작』에 수록된 <수집요강>을 보면 ‘인민창작’의 주요 대상은 ‘전통적 구전문학’과 ‘현대 인민 창작’인데 더욱 강조하는 것은 후자이다. 전자는 “①설화(이야기): 신화 전설 민담 동화 우화 기타, ②민요(노래): 로동 가요, 의식 가요, 참요, 부요, 동요, 기타 일체 옛노래들, ③민간극: 가면극(탈놀이), 인형극(꼭뚜각씨), 화극(인형이나 가면 없이 배우가 등장하여 진행되는 연극. 예: 신창 지방의 <관원놀이>), ④속담, ⑤수수께끼, ⑥판소리: 남도 판소리, 서도 판소리(배뱅이굿, 기타)”로 구성되고 후자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sup>53)</sup>

## 2. 현대 인민 창작

### ① 이야기

-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의 전투 실화 및 김일성 원수를 비롯한 혁명가들의 고귀한 인민적 품성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
- 의병 투쟁 이야기, 3·1 봉기와 관련된 이야기.
- 20~30년대의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을 반영한 이야기들
- 일제 강점 하 인민 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감정과 기분을 반영한 이야기들.
-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전투 실화 및 후방 인민들의 애국적 헌신성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
- 평화적 민주 건설 시기, 전후 복구 건설 시기 및 오늘날의 천리마 시대의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헌신적 투쟁을 반영한 이야기들.
- 평화적 조국 통일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
- 만담, 재담.
- 20세기에 들어 창작된 기타 이야기들.

### ② 노래

-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창조 보급된 혁명 가요들.
- 창가(계몽 가요).
- 의병 투쟁, 3·1 봉기와 관련된 노래들.
- 20~30년대의 로동 운동, 농민 운동을 반영한 노래들.
- 일제 강점 하 조선 인민의 반제 반봉건적 감정과 기분을 반영한 노래들.
-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창조된 노래들.
- 평화적 민주 건설 시기, 전후 복구 건설 시기 및 오늘날의 천리마 시대의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현신적 투쟁을 반영한 노래들.

- 평화적 조국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들.
- 씨름들에서 창작되어 널리 보급된 노래들.
- 기타 20세기에 들어 창작된 노래들.

③ 연극(집체적으로 창작되어 근로 대중의 공동 재산으로 된 것의 대본): 현대 제마의 인형극, 촌극, 복화극, 스켓취, 기타 현대 제마의 연극들.

④ 속담

- 종래의 말들이 현대에 들어 와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 속담으로 된 것들.
- 20세기에 들어 새로 만들어진 속담들.

⑤ 수수께끼

- 20세기에 들어 새로 만들어진 수수께끼들.
- 수수께끼의 전통을 계승하여 창작되고 있는 <수풀이>, 기타.

⑥ 판소리: 현대 제마의 판소리

『인민창작』이라는 잡지를 통해 규범적으로 내세운 '구전문학'의 '인민성'이 어떤 내용으로 지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인민창작』에 수록된 여러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근로하는 인민들의 참다운 생활 면모를 진실하게 반영한 구전 문학 작품들, 지배 계급들과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한 사상-예술성이 가장 높은 인민 창작 작품들은 지배 계급들의 탄압과 수집 연구자들의 사상적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수집 연구 사업에서 제외되었거나 간과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참으로 자유로운 사업의 보장과 진정으로 정당한 평가는 해방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sup>54)</sup>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인민창작』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민요와 구

52) 김영희, 『1960년대 초 북한 잡지 <인민창작> 연구』, 『열상고전연구』 53, 열상고전연구회, 2016, 365~414쪽 참조. 이하 김영희(2016b)로 표기.

53) 『인민창작』 1960년 제2호(85~88쪽)와 제3호(65~68쪽) 참조.

54) 편집위원회, 『8·15 해방과 인민 창작의 새로운 발전』, 『인민창작』 1960년 제2호, 과학원, 1960, 3쪽.

전이야기 자료들 가운데 지배계급의 착취와 부조리를 고발하거나, 이에 항거하는 계급적 지향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반제 반일의 정서가 뚜렷이 드러나거나, 외세를 물리친 영웅적 인민의 형상이 드러나는 이야기와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제2집에 수록된 <아리랑 류별가>는 ‘해방 전 인민가요’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제시 류별공들은 이천리 압록강을 떼’뚝 타고 내려 오면서 험한 물굽이를 돌 때마다 자신들의 처지들을 노래하면서 왜놈들을 증오하며 불렀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고 그 사실 역시 이와 같은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sup>55)</sup> 또한 항일무장투쟁기 민요와 이야기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다.<sup>56)</sup> 이는 ‘인민창작’이라는 개념을 표제어로 내건 잡지에서 ‘구전문학’의 어떤 ‘인민성’에 주목했는지, 그리고 ‘인민성’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려 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55) 『인민창작』 1960년 제2호, 앞의 책, 26쪽.

56) 『인민창작』 1960년 제2호에 수록된 자료는 해방 후 군중 가요 7편, 해방 전 인민 가요 17편, 항일 무장 투쟁에 관한 이야기들 2편, 각 지방 전설 2편, 아담 2편, 민담 2편 (김선달 이야기), 동화 2편, 민간극 대본 1편, 속담, 수수께끼, 수수께끼 동요들이다. 『인민창작』 1960년 제3호는 해방 후 인민 가요 11편, 해방 전 인민 가요 8편, 예로부터 전해 온 노래들 6편, 항일 무장 투쟁에 관한 이야기 1편, 해방 후 이야기들 4편, 전설과 민담 7편, 동화 3편, 속담과 수수께끼, 해주 탈놀이 대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방 후 군중 가요’가 ‘해방 후 인민 가요’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예로부터 전해 온 노래들’이라는 명칭으로 전통 민요를 소개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해방 후 이야기들’이라는 항목이 생기는 등 항목의 명칭과 분류에 변화가 엿보인다. 1960년 3집부터는 작품 선별 기준의 사상적 측면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인민창작』 1961년 제1호에는 해방 후 군중가요 9편, 해방 전 인민 가요 16편, 해방 전 이야기들 4편, 전설 2편, 아담 1편, 민담 6편, 동화 2편, 속담, 수수께끼, 수수께끼 동요 등이 실려 있다. 『인민창작』 1961년 제2호에는 해방 후 인민 가요 13편, 해방 전 인민 가요 8편, 항일 무장 투쟁에 관한 이야기들 4편, 전설 3편, 재담 1편, 민담 3편, 동화 1편, 속담, 수수께끼 등이 실려 있다. 『인민창작』 1961년 제3호에는 해방 후 인민 가요 15편, 해방 전 인민 가요 11편, 해방 후 이야기들 3편, 해방 전 이야기들 3편, 전설 2편, 민담 7편, 동화 2편, 속담, 수수께끼가 실려 있다.(김영희(2016b), 앞의 논문 참조.)

『인민창작』에 이르면, 이전 시기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렀던 '인민'의 개념이 단순히 인민적 지혜를 창조하고 연행, 전승하는 주체인 'folk'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주체이며 이념적인 대상인 'people'에 가까운 개념일 뿐 아니라 북한 사회의 당대적 특수성에 따라 재구성된 하나의 역사적 개념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인민창작'의 개념에서 '인민'은 사회정치적 주체로서의 'people'의 의미를 지니되 민속학적 의미의 'folk'에 더 가까워서 '인민창작'의 개념 또한 특정 양식의 문화 현상을 범주화한 개념에 가까웠다. 그러나 '조선문학'의 정체성과 혁명적 전통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인민성'의 개념이 사상적, 이념적으로 재기술됨에 따라 '인민창작'은 계급적이고 민족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 주체인 '인민'에 의거한 개념으로 재정립되고 '인민창작' 또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주체로서 '인민'이 창작한 것이자 '인민성'을 구현한 대상으로 구체화되었다. 50년대 후반 반종파투쟁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인민성'의 개념은 더욱 당파적으로 고착되었고, 유일사상체계 확립 과정에서 사상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60년대 초반 북한은 전후 사회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복구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면서 김일성 중심의 사회정치적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인민적 형상'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농촌의 협동조합운동 전개 과정에서 대두된 협동조합적 인민 및 '청산리방법'에 철저한 인민, 혹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인민 등 '인민성'의 내용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농민과 노동자 중심의 근로대중인민을 교양하고 이들을 또다른 '인민'으로 거듭나게 할 새로운 창작 자원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sup>57)</sup> 이런 상

57) 김성보에 따르면, 1953년 8월에 시작된 전후 복구 준비 단계 사업은 6개월 만에 종료되었다. 54년 ~ 64년 사이에는 인민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이 목표 이상 성과를

황에서 ‘인민창작’의 주요 자원들은 북한 사회의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는 가장 최적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인민창작’의 개념은 여러 가지 쟁점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술성’, 혹은 ‘구두성’의 문제나 연행 및 전승의 여러 자질들이 ‘인민성’의 개념으로 모두 치환되거나 ‘인민성’의 개념으로 녹아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민창작’을 문학 연구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때 발생하는 개념 간 충돌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과제 또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인민창작’이 ‘구전문학’에 곧바로 대응하는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조선문학’의 하위 범주로서 ‘구전문학’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당이 추구하는 사상적 체계화를 염두에 둘 때 문학사 구성 및 서술에서 꾸준히 ‘인민성’을 견지해 나가야 했지만 ‘구전문학’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구술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인민성’과 ‘구술성’ 사이의 관계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명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거두며 마무리되어 이미 56년에는 북한이 전쟁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제 복구 후에는 농업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협동화가 진행되어 50년대 말 사회주의 개조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는데 특히 농업협동화는 농민의 관습과 사회의식에도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우선 전통 관습 대부분이 낡은 잔재로 취급되어 풍수지리에 의한 주택 관념이 비판되고 민간신앙이 미신으로 간주되어 타파 대상이 되었다. 사회의식의 근대화가 진행된 것인데, 이때 근대적 자각은 개인적 홀로서기의 방향이 아니라 당과 국가를 따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집단적 주체로서의 자각, 즉 ‘인민’으로서의 자각이었다.(김성보(2014), 앞의 책, 182~192쪽.) 1954년에는 농민 대다수가 협동조합에 반대하기도 했고 협동조합 가입 후 나태해지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김성보(2014), 앞의 책, 209쪽.) 59년부터 시작된 천리마 작업반운동은 문화, 사상, 도덕 등 노동자들의 모든 생활 영역을 포함하는 집단적 혁신운동이었다.(김성보(2014), 앞의 책, 214쪽.)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북한 사회에서는 새로운 ‘인민’의 형상을 구체화할 교양 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 4. 소련과 중국 학계의 영향

‘인민창작’은 사실상 ‘folklore’에 대한 러시아 민속학의 번역어이자 소련 민속학이 강조한 ‘인민성’과 ‘집단성’, ‘창조성’의 개념이 강조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에트 민속학에서 해당 용어는 ‘인민창작’, ‘인민구두창작’ 등의 의미로 해석되었는데 중국의 ‘민간문학(民間文學)’이나 북한의 ‘인민창작’도 이와 같은 맥락에 따라 구성된 개념이었다.<sup>58)</sup> 1950년대 이후 소비에트 민속학에서는 30년대 고리키에 의해 강조되었던 ‘인민에 의한 집단 창작’이라는 관념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나갔는데<sup>59)</sup> 중국이나 북한 역시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정옥은 『조선구전문학연구』(1962)에서 ‘인민 창작도 다소의 불합리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구전문학보다는 과학적인 용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현대 인민 창작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시정하는 데도 필요한 용어’라고 기술하였다. 그는 “로씨야 말 폴클로르는 블란서 말 폴클로르(folklore)에서 온 말로서 원래 인민의 지식 또는 인민의 지혜라는 의미를 가졌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현재 민속학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련에서는 인민 창작을 의미하는 대표적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에서는 이와 달리 ‘민간 문학(民間文學)’이란 말이 가장 유력한 학술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말은 ‘오늘날의 중국 인민 창작’까지 포괄하기에는 ‘난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의 구전 문학도 인민 창작을 가리키는 과학 용어로 사용하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특히 기본적으로 구전 형식으로 창조 전승되었던 과거 시기의 인민 창작에는 구전 문학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

58) 일본은 ‘구승문예(口承文藝)’, 혹은 ‘구승문학(口承文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9) 김상현, 「러시아 민속학사의 이해를 위한 통합모델」, 『국제지역연구』 13권 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69~102쪽.

다.”고 주장한다.<sup>60)</sup>

“구전 문학, 인민 창작을 위시해서 폴클로르, 인민 구두 창작, 민간 문학, 구비 문학 등등의 말들은 각각 자기의 독특한 뉴안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들을 경우에 따라 유효 적절하게 쓰는 것은 필요한 것이며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이 말들을 리용하고 있다.”<sup>61)</sup>

고정옥은 구전 문학, 인민 창작, 인민 구두 창작, 민간 문학, 구비 문학 등 당시 소련, 중국, 북한, 남한 등의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용어와 개념을 열거하면서 이들 가운데 어떤 용어도 각각의 맥락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은 당시 고정옥을 비롯한 북한의 ‘구전문학’ 연구자들이 소련이나 중국, 남한의 학술적 담론 등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범주화한 개념과 용어들을 살펴 보면서 이를 참조한 가운데 ‘인민창작’이나 ‘구전문학’의 개념을 정식화해나갔음을 보여준다.

그는 다른 대목의 서술에서 “구두성이 인민 창작의 필수적 특성으로 되지 않는 것은 현대 인민 창작의 창조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글로 쓴 인민의 창작과 현대 인민 창작물들이 구전문학은 아니지만 ‘인민 창작’의 주요 대상으로 범주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고정옥은 ‘인민창작’의 개념이 ‘구두성’보다는 인민의 ‘집체성’을 더욱 본질적인 속성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것이 ‘소련 민속학’의 여러 학문적 논설들을 통해 정식화된 바 있음을 거론한다.<sup>62)</sup>

60)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48~49쪽.

61) 고정옥, 위의 책, 49쪽.

62) 고정옥, 위의 책, 44~45쪽.

“『외설리 쪼르킨』의 작가 아.페.뜨와르도브스끼는 『<외설리 쪼르킨>의 독자들에게 주는 대답』에서 외설리 쪼르킨의 형상이 어떻게 탄생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외설리 쪼르킨’은 신문과 벽신문의 펠레톤, 에쓰프라다의 레파토리, 유행가, 속요, 인형극 등이 이룩한 바로 그 반(半)폴클로르적 현대 <시>들에서 나왔다’라고 쓰고 있다. 뜨와르도브스끼는 여기서 펠레톤이나 에쓰프라다의 레파토리까지도 폴클로르와 유사한 문학-예술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 대중성, 집체성, 그 작가들의 전문화의 정도 기타에서 확실히 집단적 문학-예술과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sup>63)</sup>

고정옥이 덧붙인 주석에 따르면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소비에트 민속학자 ‘치체로브(В.И.Чичеров)’가 쓴 『문학과 구전 인민 창작』(꿈무니스트, 1955, 14호)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그가 언급한 ‘치체로브’는 ‘블라디미르 치체로프(В.И.Чичеров)’로 1950년대 소련에서 활동한 민속학자이며, 당시 중국과 북한의 학자들에게 가장 자주 인용되던 인물이다. 스탈린 사후 1950년대 후반부터 소비에트 민속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연구 성과를 드러내는데 치체로프도 러시아 민속에 대한 여러 저작을 발표했으며<sup>64)</sup>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중국이나 북한에 소개되어 그 중 일부가 번역·출판되었다.

러시아 민담과 민요 등을 수집하고 이를 탐구하는 활동은 19세기 러시아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었지만 러시아 민속, 혹은 구술 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러시아 혁명 이후였다. 한때 세계적인 문예 운동을 주도했던 러시아 형식주의가 러시아 민담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는

63) 고정옥, 위의 책, 45쪽.

64) 김상현, 『Folklore, Fakelore, Digitized Lore: 18-21세기 러시아 민속 연구사』, 『e-Eurasia』 3,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8, 37~55쪽.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민속학의 연구 수준은 이미 1920년대 이후 1930년대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민속의 연행과 전승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부터 민속의 정치적 활용, 구술과 기록 사이의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침윤으로 민속이 치명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무렵, 이에 반발하며 ‘인민의 창작’이자 ‘인민의 전승’으로서 민속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나선 이가 바로 막심 고리키였다.<sup>65)</sup>

고리키는 1934년 제1차 전 소비에트 작가회의에서 구술문학이 노동자를 비롯한 인민 계급의 대표적인 문학이며 그들의 창조적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문화유산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인류가 창조해온 문학적 전통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문학으로서 소비에트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 문학, 곧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직접적 선조이자 원형이 바로 구술문학이라고 치켜세웠다.<sup>66)</sup> 레닌을 지나 스탈린 시대를 거치면서 구술 문학 및 문화, 민속에 대한 논쟁이 다각도로 전개되었지만 스탈린 사후 1950년대 소련 민속학에서 치체로프 등이 주장한 것은 고리키의 입장을 지지하며 ‘인민의 창작’으로서 구술문학이 지닌 가치와 효과에 대한 강조였다.<sup>67)</sup>

65) 김상현, 「러시아 민속학사의 이해를 위한 통합 모델: 전통의 발견과 창조, 그리고 정치적 이용의 변증법」,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69~102쪽; 김상현, 「러시아 민속사와 민속연구의 통합적 해석 모델」, 『e-Eurasia』 18,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9, 11~16쪽.

66) 서선정, 「민중의 문학에서 허위 민속으로: 비평 속에 드러난 소비에트 구술문학과 이데올로기」, 『러시아연구』 제24권 제1호,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2014, 94~95쪽.

67) 고정욱도 『조선구전문학연구』에서 고리키의 발언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조소출판사에서 발간한 『문학론』 안에 수록된 고리키의 「나의 창작 수업에 관하여」를 인용하여 노동 계급의 자각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허구적 환상이 어떻게 소멸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그는 이밖에도 『인터나쇼날』이나 『콤뮤니스트』 등을 인용하여 소비에트 민속학 이론가들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하느님도 임금도 영웅도 우리를 구제 못 하리, 우리는 다만 제 손으로 해방을 가져 오리라’와 같은 새로

고리키는 '구술 문학', 혹은 '인민 창작'의 여러 자질 가운데 '집단성'의 가치를 대단히 강조하였는데 치체로프는 이와 같은 입장을 1950년대 소비에트 민속사에서 두드러지게 부각시킨 인물이었다. 그리고 치체로프 등의 민속학자들은 구전성을 집단성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자질로 인식하였으며, 당대 노동자 인민의 집단 창작을 예부터 내려온 구술 문화 유산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였다.<sup>68)</sup> 이들이 주목한 '인민의 집단 창작'에 내재한 중요한 가치는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것이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망을 보여주는 민중적 유토피아 관념이 드러나는 것, 인민의 삶과 노동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건강함과 인민적 자질이 돋보이는 것 등이었다.<sup>69)</sup>

특히 치체로프는 1950년대 소비에트 민속학자 가운데 민속문화에서 노동계급의 역할을 강조한 1930년대 이후의 소비에트 민속학의 경향을 높이 평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1930년대 중반을 소비에트 민속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을 받아들인 역사적인 시기로 보았다.<sup>70)</sup> 치체로프는 “소비에트 시대의 새로운 구술문학을 혁명 전 사회의 낡은 구술문학의 형식적 틀 속에서 담아내고자 한 구술문학의 연구경향을, 퇴치하지 못한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적 이론들의 잔재로 혹평하며, 민중시가창

---

운 시대의 인민 창작을 소개하기도 하였다.(고정욱(1962), 앞의 책, 9쪽.) 1957년 창간 2년째를 맞이한 과학원 발간 잡지 『조선어문』에는 러시아어 목차가 조선어 목차와 나란히 실려 있으며 여기에 수록된 연구소 계획과 전망 관련 글에는 소비에트 연방이나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 소속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나타나 있다.(김영희(2016b), 앞의 논문, 381~384쪽.)

68) 김상현, 『러시아 민속학사의 이해를 위한 통합 모델: 전통의 발견과 창조, 그리고 정치적 이용의 변증법』, 90쪽.

69) 김상현(2009), 앞의 논문, 13쪽.

70) 홍석우, 『한스 니우만의 문화이론과 소비에트의 민속학』, 『슬라브연구』 제 17권 2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01, 80쪽.

작의 역사적 발전의 법칙성을 고려한 학문을 추구”<sup>71)</sup>했다고 한다. 그는 전통적 구술문학의 형식을 양식화한 후 이에 의거하여 인민이 새롭게 창작한 민속 자료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치체로프의 태도는 북한 학계에서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기 이후 혁명적 문학 전통을 계승한 현대의 ‘인민 창작’을 주요 문학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연구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스탈린 사후 1953년부터 1955년 사이 소비에트 민속학계에서는 인민성, 혹은 민중성을 구술문학의 핵심 자질이나 개념 정의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치체로프였다. 치체로프를 비롯한 민속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필연적으로 구술문학과 민중문학(인민문학)의 개념적 혼용, 기록문학과 구술문학 내지는 개별 창작과 집단 창작 사이 경계의 모호성, 국가 주도 구술문학 ‘창작’의 문제 등 여러 쟁점을 야기하는 것이었다.<sup>72)</sup> 그리고 이와 같은 쟁론은 소비에트 민속학의 영향을 받은 중국이나 북한 학계에서도 반복되었다.

중국에서는 ‘구전문학’이나 ‘인민창작’이라는 용어보다는 ‘민간문학(民間文學)’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였는데 이 개념 역시 ‘인민창작’이나 ‘인민구두창작’ 등의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sup>73)</sup> 일반적으로 중국 학계에서 ‘민간문학’에 대한 연구는 5.4운동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1918년 2월 유반농(劉半農), 심윤묵(沈尹默), 주작인(周作人) 등이 ‘가요정집처(歌謠征集處)’를 창설하여 ‘민간 가요’ 등을 수집하고, 1920년 12월 “가요정집

71) 서선정, 앞의 논문, 107쪽.

72) 서선정, 앞의 논문, 108쪽.

73) 이하 중국 학계의 ‘민간문학’ 개념 관련 서술에는 2015년 1학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강의 <구비문학특수연구>에서 대학원생들과 논의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이때 중국 유학생인 가첩 학생과 이효청 학생이 관련 내용을 주로 발제하였다.

처(歌謠征集處)'를 “가요연구회(歌謠研究會)”로 개명한 후 1922년부터 『가요주간(歌謠週刊)』을 출판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간 데서부터 ‘민간문학’에 대한 수집과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sup>74)</sup> ‘민간문학’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사용한 이는 호유지(胡愈之)인데, 그는 1921년 1월에 발간된 『부녀잡지(婦女雜誌)』(제7권 제1호)에 ‘민간문학에 대해 논함』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영어의 Folklore하고 독일어의 Volkskunde와 비슷하게, 민족 내부에서 유행하는 문학이다. 이를테면 신화, 이야기, 전설, 산가(山歌), 선가(船歌), 아가(兒歌) 등이 모두 민간문학에 포함된다.”고 ‘민간문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술 문학(Oral Literature) 일 뿐 문자 문학은 아니다.”라는 서술을 덧붙였다.<sup>75)</sup>

중국의 대표적인 민속학자 종경문(鍾敬文)은 1930년대 ‘민간문학’과 ‘민간문예학’의 개념을 정립한 학자였다.<sup>76)</sup> 그는 1930년에 절강(浙江)에서 <민간문학개요(民間文學綱要)>라는 강의를 편집하면서 ‘민간문학’의 개념을 재론하고 다시 1935년 말에 『민간문예학의 건설(民間文藝學的建設)』이라는 글에서 ‘민간문예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sup>77)</sup> 그는 이 글에서 ‘민간문예’를, ‘집단사상의 공통적인 표현이며 전과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정제되는 것’, ‘구전되며 이동하는 언어를 매개물로 하는 문예’, ‘울림현상과 마찬가지로 소리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문예’, ‘집단성을 가진 문예’, ‘민중들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예’로 정의하고, ‘구전성, 집단성, 유사성(類似性)과 소박성(素朴性)’을 핵심 자질로 서술하였다. 그는 또 ‘민간문예’가 ‘노동을 보조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자연을 저주

74) 王文宝, 『中國俗文學與俗文學運動』, 『文藝報』, 1998 참조.

75) 胡愈之, 『論民間文學』, 『胡愈之文集1』, 1996, 142~143쪽.

76) 尹虎彬, 『20世紀口傳文學研究的十個誤區』, 『民族藝術』4기, 2005, 93쪽.

77) 孫正國, 『20世紀民間文學本體的理論探索及其局限』, 『文藝理論』2기, 2004, 103쪽.

하거나, 혼인을 성사시키거나,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sup>78)</sup>

주목할 것은 그가 1937년에 항일전쟁 시기에 '민중문예(民衆文藝)'<sup>79)</sup>의 개념을 제기하고, 이후 1950년대에 소비에트 민속학의 영향을 받아 이 개념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구전문학창작'이나 '인민구두창작'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1954년에 '구전문학창작(口傳文學創作)'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 무렵 치체로프(В.И. Чирепов)의 저서 『러시아 민속예술』(1959)을 번역하면서<sup>80)</sup> 그의 '인민 구두창작(人民的口頭創作)'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sup>81)</sup> 이 결과물로 1964년에 『러시아 인민의 구두창작(俄羅斯人民的口頭創作)』<sup>82)</sup>이라는 번역서가 출간되었다. 이처럼 종경문도 소비에트 민속학의 영향을 받아 '인민의 구두창작(人民的口頭創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시기가 있었지만<sup>83)</sup> 종경문이 이때 이후로 '인민구두창작'을 표제적 개념으로 앞세워 '민간문학'을 뒤로 밀쳤던 것은 아니다. 그는 이후에도 여전히 '민간문학'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가 이 당시에 '인민에 의한 창작'이라는 관념을 좀더 강조한 소비에트 민속학의 개념들에 영향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는 특히 치체로프의 개념을 받아들여 '민간문학'의 부제적 개념으로 '인민구두창작'이라는 용어를 쓰거나 '민간문학'의 핵심적 자질, 혹은 특징으로 '인민의 구두창작'이라는 점

78) 鍾敬文 著, 董曉萍 편집, 『民間文藝學的建設』, 『鍾敬文文選』, 2013, 99~106쪽.

79) 鍾敬文, 『民間文藝之教育意義』, 『民間文藝談藪』, 1981, 41~44쪽.

80) 尹虎彬, 『20世紀口傳文學研究的十個誤區』, 『民族藝術』 4기, 2005, 93쪽.

81) 鍾敬文, 『人民口頭創作在民衆生活中的位置和作用』, 『民間文藝談藪』, 1981, 30~35쪽.

82) A·開也夫 著, 連樹聲 譯, 陳大維 교감, 『俄羅斯人民口頭創作』, 中國民間文藝出版社, 1964 참조.

83) 鍾敬文 著, 『人民口頭創作在民衆生活中的位置和作用』, 『民間文藝談藪』, 1981, 30~35쪽.

을 앞세우게 되었다.<sup>84)</sup>

이와 같은 태도는 그의 제자 오병안(烏丙安)에게도 계승되었다. 오병안은 종경문이 1954년에 '구전문학창작'이라는 개념을 제기하고 1956년에 '인민구두창작'의 개념을 제기한 것이 모두 소련 민속학의 영향이라고 말한다.<sup>85)</sup> 그는 'folklore'를 소비에트 민속학에서 '인민구두창작', '인민창작', '민간창작'으로 번역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이 1950년대 중반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속학 연구에도 유입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실상 '민간문학', '민간구두문학', '구전문학', '구승문학', '노동인민의 구두창작', '민중문학학', '구두전통', '구술문학' 등의 용어가 모두 같은 뜻인데 중국 학계와 교육계에서 하나의 관습적 용어로 '민간문학'이라는 말을 널리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서술하였다.<sup>86)</sup> 그는 종경문의 '민

84) 종경문(鐘敬文)은 『중국대백과전서』의 '민간문학' 항목에서 '민간문학'은 '광대한 노동인민의 언어예술-인민의 구두 창작이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여기서 그는 '민간문학'의 특징으로 집단성, 구두성, 변이성, 전승성을 들었는데 이는 고정옥이 『조선구전문학연구』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다. (홍윤희, 『중국어문학회』의 주체는 누구인가-중원인의 민속학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90, 중국어문학연구회, 2015, 471쪽.)

85) 오병안은 '민간문학(民間文學)'이란 용어가 19세기 이래 서유럽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Folk-lore"로부터 발전한 것이며 이것의 원래 의미인 "민중의 지혜, 민중의 지식"을 19세기에 러시아 민속학자들이 '인민구두창작'으로 번역하여, 이후 러시아 및 소련 민속학에서는 이 용어 외에도 '인민창작', '구두문학', '민간창작'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후 소련에서는 '인민구두창작'이라는 용어가 교과서에 쓰인 동시에 일상에서나 학계에서도 널리 승인받아 활용되어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덧붙여 5·4 운동 시기 'folklore'가 민속학으로 번역되었다가 민속학의 구두예술 부분만 독립시켜 '민간문학'으로 호명되었다고 설명하고, 이것이 다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에 러시아 및 소련 민속학의 영향을 받아 '인민구두창작'으로 번역된 바 있다고 기술하였다.

86) 烏丙安, 『民間口頭傳承』, 長春出版社, 2014 참조. 이 책은 원래 1957년 4월에 출판되었는데 당시 제목은 '인민구두문학개론'이었다. 1980년 11월에 춘풍문예출판사가 수정하며 재판할 때 '민간문학개론'으로 개명하였다. 2014년에 다시 편집할 때는 원저의 '구두문학'이라는 개념의 특징을 적극 고려하여 '민간구두전승'으로 개명하였다.

간문학' 개념을 '인민창작'과 '인민구두문학'의 관점에서 재기술하기도 하는데, 『민간문학개론(民間文學概論)』에서 종경문이 말한 '민간문학'이 "인민 대중의 구두 문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그는 '민간문학'에 대해 "인민 대중의 구두 창작이다. 민중 사이에 유전되어 있고 주된 민중의 노동 생산을 반영한다. 일상생활과 사상 감정은 그들의 심미 관념과 예술 정취를 표현한다."<sup>87)</sup>고 설명한다.

중국 민속학계에서 '민간문학'이라는 용어에 '인민구두창작'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50년대 후반의 일이며 이는 당시 소련 민속학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일이었다. 민속학이 '민중의 지식, 혹은 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소련 민속학이 '민중'을 '인민'으로 번역한 데 대해 중국 민속학은 이를 '민간(民間)'이라는 용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민속학에서 '인민이 창작'한 '구두전승'의 문학적 대상들을 따로 분리시켜 범주화하기 위해 '문학'의 범주 안에서 '민간문학'이라는 용어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인민구두창작'의 용어에서 '인민'은 곧 '민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두창작'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다루어지는 데 문제를 제기한 학자들은 '민간구두전승'이나 '민간구두창작' 등의 용어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중국 학계에서 '인민구두창작', '민간구두문학', '민간구두전승' 등의 용어를 사용하되 북한에서처럼 '인민창작'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구두성', 혹은 '구술성'이 '인민창작'의 개념을 통해 인민성이나 집단성으로 소멸해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의식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87) 鍾敬文, 『民間文學概論』, 上海文藝出版社, 1980, 1쪽.

## 5. '인민성'과 '구술성' 사이의 길항

북한 문학사에서 '인민창작'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을 때 그 '인민'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인민'의 개념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혹은 역사적 맥락을 초월하여 동질적인 개념으로 인식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문학 연구' 및 '문학사 기술'에서 '구전문학'이라는 개념을 대타자로 둔 '인민창작'에서 '인민'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사회역사적 주체로 호명된 '인민'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혹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선식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했던 북한에서 '인민'이 어떤 정치적, 이념적, 사상적 주체를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북한에서 '인민'은 단순한 '자연인', 혹은 피지배 대중 일반, 혹은 민중에 대응하는 개념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개념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제국'과 '식민'의 흔적, 맑스-레닌주의의 교조적 해석, 소련이나 중국의 영향, 전쟁으로 부각된 '제국'으로서의 미국이라는 관념, 한국전쟁 경험 및 반중과 투쟁 이후 '제거'된 내부의 적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세력이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 등이 모두 이 시기 북한 사회 '인민'이라는 경계의 '외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인민'의 개념은 결코 단순하게 이해될 수 없다.<sup>88)</sup>

북한은 정부수립 당시 헌법에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개인을 '공민'으로

88) 한성훈은 전쟁의 경험과 이후 북한 사회 내부에서 진행된 '내부의 적'에 대한 '배제와 제거' 작업,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 체제에 스며드는 과정 등을 통해 북한 사회 '인민'의 경계가 복합적으로 설정되며 구체화되는 과정을 논증한 바 있다. (한성훈, 『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2012, 1~631쪽.)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북한 사회에서 호명된 '인민'이 누구이며 이와 같은 '인민'의 형성과 주요 과정에서 '구전문학' 혹은 '인민창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사회정치적 효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론하기로 한다.

명시했지만 이는 법적, 실제적 자격을 갖춘 개인을 호명하는 용어일 뿐이다. 북한의 헌법 제1장 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는 문장에서 지시된 ‘인민’은 역사적, 계급적 의미의 주체이며, 무수한 ‘비(非)인민’의 역사적 맥락들을 끌어들이었을 때 그 내적 동질성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인민’은 사회발전에 진보적 역할을 하는 계급과 계층을 포괄하는 근로대중을 가리키는 사회역사적 개념으로서 계급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민’은 근대 국가 이전 시기에도 존재했던,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지시하는 개념이기도 하며, 주권의 원천과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개념이라는 맥락에서 좀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활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계급적 관점을 개입시켜 지배체제나 정치적 지도자에 대비되는 기층의 정치적 주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대중적이고 기층민중적인 성격’, ‘반엘리트주의적 동원에 활용되는 대상’ 등을 환기하는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특히 근대국가 성립과정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피지배자 전체, 곧 분할되지 않는 집단 주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sup>89)</sup>

1950년대 말~1960년대 초의 시대 상황 속에서 북한의 ‘인민’은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전제로 호명되었다.<sup>90)</sup> 보편적 주권 주체로서의 자연인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계급적 관점에서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주체

89) 한성훈, 위의 책, 30~33쪽.

90)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참고문헌만 제시하기로 한다.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144, 한국사연구회, 2009, 69~95쪽; 임종명, 『해방 공간과 인민, 그리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한국사연구』 167, 한국사연구회, 2014, 193~246쪽; 이신철, 『‘인민’의 창조와 사라진 ‘민중’-방법으로서 북조선 민중사 모색』, 『역사문제연구』 23, 역사문제연구소, 2010, 195~232쪽; 이세영, 『북한 노동계층의 형성과 의식 변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1~62쪽.

를 가리키는 개념이며 과거 식민지 경험과 제국의 흔적을 지운 바탕 위에 구성된 주체가 바로 '인민'이다. 이와 같은 '인민'은, 전쟁의 경험 속에서 미국이라는 외세에 대항하는 주체로 재구성되었으며 북한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 속에 김일성이라는 수령의 지배와 영도에 따라 호명된 주체로 거듭났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 세력들이 북한 사회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인민'은 혁명적 전통의 계승자로서 반외세의 민족적 자질을 갖춘 존재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또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소련이나 중국과도 다른 '조선 인민'이라는 고유성, 혹은 민족적 관점에서 재기술된 의미를 내포하며, 전후 북한 사회를 재건하고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체제의 사회를 이끌어갈 동력으로서 책임과 사명, 권한과 자질을 동시에 갖춘 주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인민'은 정치 권력의 주체로서 추상화된 존재에 머물지 않고 '북한식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주체로서 이에 걸맞는 도덕과 윤리, 특정 성과와 자질을 하나의 덕목으로 갖춘 존재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이 구체화 과정에서 '인민'의 형상을 구축, 혹은 재현하고 이를 '인민'에게 내면화하는 선전·선동 및 교양의 매개로 구성된 것이 '인민창작'이었다.

그러나 '인민창작'이 역사적이거나 정치적 맥락에서만 구축된 개념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는 민속, 곧 기층문화(folklore)의 창조 및 연행·전승 주체로서 '인민'이 '창작'한 것을 가리키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에 북한 사회의 정치적 맥락이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북한 사회가 내부의 논쟁들을 해소하고 점차 사회 내적 동질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1960년대 초 '인민창작'에 개입된 '인민성'의 개념은 훨씬 더 이념적으로 강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인민성'의 개념은 북한 사회가 호명하는 '인민'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내포하는 동시에 북한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서 '인민'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하는 당위적 질문을 전제한다. ‘인민창작’은 ‘인민에 의한 창작’인 동시에 ‘인민을 위한 창작’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인민창작’은 사회·역사적 주체로서 인민의 정치적 권리와 소명을 선언하고 증명하는 매체인 동시에 인민에게 지시되거나 강제된 계몽적 인민교양의 총체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문적 개념으로서 ‘인민창작’은 여전히 ‘인민의 것’을 의미하는 ‘folklore’에 묶여 있었고 또 문학적 연구대상으로서 ‘인민창작’은 ‘조선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재규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연유에서 ‘인민창작’을 표제어로 내건 잡지의 창간과 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고정옥은 1962년에 발간한 자신의 책 제목을 ‘조선구전문학연구’로 하고 그 대신 ‘인민창작’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구전 문학(인민 창작)’으로 표기했던 것이다. ‘인민 창작’을 괄호 안에 넣은 채 병기하면서도 ‘구전 문학’을 표제어로 내세운 것은 학자로서 고정옥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감당하려 했는지 짐작케 한다. 1964년에 북한에서 발간된 『구전문학자료집: 설화편』의 머리말에 따르면 『인민창작』은 뒤에 『구전문학』으로 잡지명이 바뀌었다.<sup>91)</sup> 또한 1990년에 나온 장권표의 연구서 제목 또한 ‘조선구전문학개요’이다. 이와 같은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1960년대 초반 이후 학문적으로는 ‘구전문학’이 ‘조선문학’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고 ‘인민창작’은 문학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인민성’과 관련된 별도의 개념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뒤에 살펴보겠지만 ‘인민성’의 관념은 ‘구전문학’의 개념에서 소거될 수 없는 요소로 깊게 자리잡는다.

고정옥은 1962년에 발간된 『조선구전문학연구』에서 ‘위대한 예술의 창조자는 인민’이라는 조선 노동당의 교시를 받아들여 ‘인민창작’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 ‘인민창작’이라고 해서 모두 예술적으로 완벽하다고 생

91) 최중배/현두천 편, 『구전문학자료집: 설화편』,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5~6쪽.

각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sup>92)</sup> 고정옥은 인민창작을 부정적이거나 허무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반동으로 규정하고 인민창작을 정당하게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인민창작을 이상화하는 것은 과학적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sup>93)</sup>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인민창작에서 '불순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으로 뒷받침되는데 그가 '불순한 요소'들로 간주한 것이 비단 인민적 계급성이나 사상성에 어긋난 것만은 아니었다. 그가 이와 같은 발언을 통해 의식한 것은 '인민창작'을 이상화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그 자신에 대한 비판, 그리고 '조선의 고전 이거나 옛것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는 복고주의에 대한 비판, 학문적 체계성과 과학적 이론에서 벗어난 태도 등이었다.

고정옥은 『인민창작』 발간에 관여하기 전인 1950년대 후반에 과학원에서 조선 고전문학 연구를 주도하면서 '구전문학' 연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는 1957년부터 1959년 사이에 『조선어문』 등에 수록한 여러 저술을 통해 '조선문학'의 원형이자 원천으로서 '구전문학'의 가치를 거듭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의 설화에 관하여-〈패설문학〉의 성격 및 소설의 발생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sup>94)</sup>라는 글을 통해 진화론적 관점에서 조선문학사의 지속적 전통을 재구해냈는데 이 과정에서 '소설' 등의 새로운 서사문학의 탄생을 가능하게 만든 원천이 '설화' 문학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설화'에서 '패설'을 통해 '소설'로 나아가는 서사문학사의 진화론적 구도를 가설한 것이다.

그러나 리응수는 이미 1957년에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

92)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1쪽과 7쪽.

93) 고정옥, 위의 책, 14쪽.

94) 고정옥, 「조선의 설화에 관하여-〈패설문학〉의 성격 및 소설의 발생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어문』 1959년 제1집, 1959, 37~51쪽.

관한 바 있다.<sup>95)</sup> 그는 고정옥의 언급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의 기록물을 ‘구전문학’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한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역사 기록으로 보지 않고 문학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김부식과 일연이 직접 ‘기록’하고 ‘기술’했다는 문제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는 같은 글에서 <춘향전>의 주제를 반봉건적이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했을 때 그동안 해당 작품의 주제가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이상화되었다고 비판하고 송강 정철의 작품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리응수는 맑스-레닌주의 문예 미학의 관점에서 ‘조선문학’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계급적 관점을 더욱 명확히 견지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과학적 관점에서 구술성과 기록성의 문제를 더욱 철저히 파고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정옥이 『조선어문』 같은 권호의 리응수 글 바로 뒤에 자신의 글을 싣고 여기서 조선문학사의 소설이 패설로부터 나왔고 이 패설은 구전문학을 정리한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sup>96)</sup> 이것은 1950년대 후반 북한 문학계가 열정어린 논쟁으로 들끓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논쟁이 이념이나 사상으로만 함몰되지 않고 학문적 엄밀성과 이론적 체계성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김민혁은 ‘구전문학’ 연구자로서 고정옥의 주장

95) 리응수, 「조선 고대 중세 문학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선어문』 1957년 제5집, 1957, 31~48쪽.

96) 고정옥, 「우리나라의 어문학 유산: 용재총화」, 『조선어문』 1959년 제5집, 1959, 49~53쪽.

을 비판하는 논문을 『조선어문』에 여러 편 수록하고 있다. 그의 논문은 1960년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는데 57년부터 59년 사이에는 『조선어문』에 총 세 편의 논문을 수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1957년 「구전문학의 본성에 대하여」<sup>97)</sup>라는 글에서 1955년과 1956년에 『력사과학』을 통해 발표된 고정옥의 글 「조선 문학사와의 관련에서의 구전 문학-조선 구전 문학 연구 서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맑스-레닌주의 문예 이론과 소비에트 민속학 및 문예 이론에 더욱 철저히 의거한 이론적 관점에서 고정옥의 글을 비평한다.

그는 고정옥이 '서사문학'과 '구전문학'을 서로 대별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구전문학'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서사문학'에 종속된 대상으로 간주한 것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고정옥은 '서사문학'을 기록언어에 의한 것, '구전문학'을 음성언어에 의한 것으로 대별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구전문학'이 고유의 체계와 본성, 독자적 자질을 갖고 있으며 서사문학과 서로 교호하는 가운데 문학사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구전문학'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는 고정옥의 태도를 비판하고, '구전문학'을 '인민의 지식'으로 간주하여 '민속학'의 하위 범주로 인식하는 고정옥의 견해를 비판한다. 또한 그는 고정옥의 진화론적 관점도 비판하고 있는데 고정옥이 은연 중에 '구전문학'을 '서사문학'보다 낮은 단계의 문학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옥이 '구두성'에 집착하여 '구두문학'과 '구전문학'을 구별하고 '구두성'을 핵심적 자질로 판단함으로써 '구전문학'의 본질이 '집단적 창작'에 있다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인민창작'과 '구전문학'을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구전문학'을 계급적 관점에서 좀더 철저하게 비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97) 김민혁, 「구전문학의 본성에 대하여」, 『조선어문』 1957년 제5집, 1957, 19~30쪽.

김민혁은 같은 해 바로 다음 호 『조선어문』에 러시아 혁명기 노래인 10월 혁명 관련 노래들과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기 조선 구전 가요들을 혁명 가요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글을 신기도 하였다.<sup>98)</sup> 또한 그는 1959년 『조선어문』에 「전통적 서정 민요에 표현된 봉건 시대 조선 인민들의 사회-정치적 견해」<sup>99)</sup>라는 글을 신고 이 글을 통해 항일무장투쟁기 이전의 전통 민요에 나타난 반봉건적 계급 의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들 글에서 김민혁은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인민창작’이라는 용어를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구전문학’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의 모든 이론적 근거는 맑스-레닌주의 문예 이론과 소비에트 민속학 및 문예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항일무장투쟁기 민요나 김일성의 교시, 천리마운동에서 나타난 인민의 위대함 등을 지적함으로써 그의 사상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연구자들이 ‘조선 인민’의 고유 자질을 강조하거나 항일무장투쟁기 문학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맥락을 달리 한다. 오히려 그는 ‘조선 인민의 문학’에서 세계 인민, 혹은 피지배계급의 보편 자질을 발견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항일무장투쟁기 가요를 러시아 혁명기 가요와 비교하고 전통 민요에서 봉건 질서에 항거하고 봉건적 압박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인민의 계급적 형상을 발굴하려 노력했던 것이다.

1962년에 발간된 고정옥의 저서 『조선구전문학연구』는 연구자로서 그의 성과를 집대성한 글이되, 이와 같은 1950년대 후반 북한 학계의 논쟁 성과를 갈무리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적 연구 역량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1950년대 후반 북한 문학

98) 김민혁, 「10월 혁명과 조선 구전 가요-8-15 해방전 조선 구전 가요를 중심으로-」, 『조선어문』 1957년 제6집, 1957, 21~41쪽.

99) 김민혁, 「전통적 서정 민요에 표현된 봉건 시대 조선 인민들의 사회-정치적 견해」, 『조선어문』 1959년 제2집, 1959, 12~29쪽.

계의 여러 연구자들이 논쟁한 여러 주제를 수용한 일종의 '대화적 산물'인 셈이다. 『인민창작』의 발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류를 향한 지향은 고정옥을 비롯한 당시 북한 '구전문학' 연구자들의 연구자적 정체성이 학문적 엄밀성에 토대를 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인민창작』에 수록된 것들은 연행자 정보와 지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수집 요강 등에는 수집자나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작품의 맥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sup>100)</sup> 또한 조사 당시의 여러 사회적 맥락이나 연행자가 구술한 작품 전승의 이력 등을 조사시 별도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고정옥은 자신의 저서 『조선구전문학연구』에서 기존의 구전문학 자료집의 자료 수집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비판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는데<sup>101)</sup> 이와 같은 그의 인식은 『인민창작』을 발간할 당시에 참여한 연구자들이나 1950년대 후반 '구전문학' 연구를 주도했던 이들에게 공유된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같은 글에서 기존의 구전문학 자료집들이 각 자료들을 장르 구분 없이 제시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의식이 『인민창작』에 그대로 반영되어 『인민창작』에 수록된 자료들은 시가나 갈래를 엄격히 구분한 상태로 제시되었다.

1950년대 후반 북한 '구전문학' 연구자들이 보여준 학문적 엄밀성과 이론적 체계성은 고정옥의 『조선구전문학연구』에서 '구전문학'의 개념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서 그는 '인민창작'과 '구전문학' 사이의 여러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구술성'과 '기록성'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지만 '집단성'으로 표상된 '인민성'과 '구두성'으로 표상된 '구술성' 사이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적

100) 김영희(2016b), 앞의 논문 참조.

101) 고정옥(1962), 앞의 책, 70쪽.

극적으로 해명하려 한다. 그는 책의 서론에서 ‘인민이 가장 현명한 철학자이며 탁월한 예술 창조자’라는 선언적 언술로 논의를 시작한다. 인민의 창조적 역량에 대한 상찬으로 시작된 그의 저술은 ‘설화’부터 ‘패설’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문학사에서 ‘인민창작’의 위대한 계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진술로 이어진다. 그는 여기서 과거 ‘인민창작’에 봉건의 잔재나 반인민적 성향이 드러남을 부인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논평하여 ‘인민창작’의 개념과 지향을 사상적 관점에서 ‘바르게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인민창작’을 낭만적으로 이상화하지 않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며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관점에서 인민의 혁명적 낭만성과 올바른 품성이 드러난 대목들을 제대로 발견하여 의미있게 기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고정옥은 이와 같은 기술이 ‘과학적 태도’에 의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sup>102)</sup>

고정옥은 ‘구전문학’과 ‘인민창작’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명하지는 않은 채 이 관계의 규명이 매우 어려운 논제임을 고백한다. 그는 ‘인민창작’이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예술적 인민창작’의 줄임말이며 ‘구전문학’보다 과학적인 용어라고 말한다. 또 ‘인민창작’이 현대 인민 창작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교정하는 데 필요한 용어라고도 말한다.<sup>103)</sup> 그러나 그는 저술 전체에서 시종일관 ‘구전문학(인민창작)’이라는 표제어를 사용한다. 또한 그는 조선문학의 하위 범주로 ‘인민창작’이 아니라 ‘구전문학’을 제시한다. 그는 ‘인민창작’이 ‘구전문학’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문학’이라는 관점에서는 ‘인민창작’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다른 서술 대목에서 ‘구전문학’을 ‘구전 형식의 인민창작’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sup>104)</sup> 그는 이 대목에서

102) 고정옥, 위의 책, 1~23쪽.

103) 고정옥, 위의 책, 48쪽.

'구전문학'과 '인민창작'이 매우 인접해 있으며 서로 다른 범주의 개념이기는 하되 상호 긴밀하게 교호하는 관계에 있다고 기술한다. '구전문학'을 표제어로 내세우며 '인민창작'을 병기한 고정옥의 선택은 '인민의 창작'이라는 민속학적 관점이나 '인민성'이라는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관점을 견지하되 '조선문학'의 하위 범주로서 '구전문학'을 체계화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표명된 결과로 보인다. '인민성'을 향한 북한 사회 내부의 정치적 요청에 응답하고 민속학적 관점에서 '민요' 연구로부터 출발했던 그의 학문적 배경에 토대를 둔 선택인 동시에 당대 동료 학자들과의 토론과 교섭을 통해 '조선문학'의 하위 범주로서 '조선 구전문학'을 구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해결하지 못한 많은 쟁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는 '구전문학'이 '일반 문학'과 구별되는 첫 번째 특성으로 '인민성'을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조 과정에서의 집체성'을 들었는데 사실상이 역시 '인민창작'의 개념에 결부된 관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특성인 '인민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이 '집체성'으로부터 '가변성', '구두성', '무명성' 등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구두성은 때로 결여될 수도 있으며 구두로 창작되지 않는 것도 '인민창작'일 수 있다고 말한다.<sup>105)</sup> 그는 여기서 '인민창작'과 '구전문학' 사이의 차이를 말하고자 한다. '인민창작'의 경우 '구두성'이 본질적 특성이 아니지만 '구전문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선 그의 서술은 '구전문학'의 본질적 자질이 '인민성'과 '집체성'에 있다고 말한다. 그의 뒷부분 서술을 참조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인민창작'의 관점에서 '구전문학'의 개념을 서술할 때 '인민성'과 '집체성'이 핵심이지만 '인민창작'에 포괄되지 않는 '구전문학'의 자질로는 '구두성'을 들어야 한

104) 고정옥, 위의 책, 46쪽.

105) 고정옥, 위의 책, 52쪽.

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06)</sup>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의 서술은 ‘구전문학’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매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은 그가 ‘인민창작’이 아닌 ‘구전문학’을 표제어로 내세운 것과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이와 같은 논지의 연장선상에서 ‘구전문학’이 기술 전승되면서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나 ‘구전문학’의 비언어적 연행 맥락 등에 대해 학문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동일한 사상 주제적 기초 위에 여러 변종 또는 변형들이 발생하는데 변종은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발생하며 또 전승의 매개 모멘트에서 개별적으로도 발생한다. 즉 시간적 공적 내지 종적 횡적으로 매개 작품이 전승 전파되는 과정에서 변종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개인적 스펙트럼에서도 변종은 존재한다. 역사적 변종들은 때로는 구전 작품 호상 간에서도 인정되나 매개 역사적 단계의 문헌에 정착된 작품들의 비교에 의해서 더욱 선명하게 포착되며 특히 문헌에 정착된 작품들과 구전 작품들과의 대비의 방법이 가장 명확한 표상들을 준다. 역사적 변종들은 매 단계의 사회-경제적 조건들 및 문화-예술적 환경에서 매개 작품이 어떻게 발전 또는 변형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sup>107)</sup>

그는 ‘구전문학’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개인의 창작과 집단의 전승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위와 같이 자신의 견해를 내놓는다. 잇따라 그는 ‘구전문학’이 집체적으로 전승되는

106) ‘구전문학’과 ‘인민창작’ 사이에서 고정옥이 고민한 내용들은 좀더 상세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계보학적 탐색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107) 고정옥, 앞의 책, 32쪽.

과정에서 '사상-테마가 더욱 선명하게 되어 '슈제트'가 더욱 합리적으로 정리되며 디테일이 더욱 풍부해진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는 여기서 전승의 역사적 과정을 '슈제트'의 형성과 변종 및 변형의 발생 과정으로 설명하고, 이에 따라 역사적 지리적 변종의 형성과 원형의 추론 및 확정이라는 문학적 연구 과제들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그의 관점과 방법론은 러시아 민담 연구에서 본격화된 러시아 형식주의의 이론적 틀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구전문학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첫째, 문헌들 및 문서들에 보존되어 있는 작품들과 현대 구전 작품들과를 대조하면서 동일한 원형에서 출발한 여러 작품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고(이를 위해 원형을 찾아내고 변종들을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여러 민속학적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시행해야 하며 셋째, 한 작품에 대한 모든 역사적 지리적 변종들 가운데서 사상적으로 가장 선진적이며 예술적으로 가장 걸출한 것을 가려내어 다른 변종들에만 있는 성과들을 첨부함으로써 완벽한 하나의 새로운 작품을 구성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sup>108)</sup>

그는 블라디미르 프로프(Vladimir propp, 1895~1970) 등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 지리적 조건에 따른 텍스트의 변화와 이에 따른 원형의 추정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구두전승'의 두 측면으로 '전통'과 '혁신'에 주목해야 함을 잊지 않았으며 구전이야기가 기록으로 정착된 후 다시 '구두전승'되는 양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구전문학'이 특수한 존재 형식으로서 '혼합성'을 지닌다고 설명함으로써 '구전문학'의 분석 과정에서 연행(performance)의 제 측면들, 다시 말해 음악이나 춤, 연극 등의 공연예술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up>109)</sup> 아

111) 고정욱, 위의 책, 65쪽.

올리 그는 구술성에 주목하여 ‘구전’이 기억에 편리한 형식이자 인민의 미학적 요구에 적합한 운문 형식이었으며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사물 현상을 형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인민이 ‘구전’을 통해 추상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형상적으로 사고했다는 서술을 덧붙이기도 하였다.<sup>110)</sup>

그는 ‘구전문학’의 비문학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정옥은 ‘설화’, ‘민요’, ‘민간극’, ‘판소리’, ‘속담’, ‘수수께끼’를 ‘구전문학’의 하위 장르로 구성하고 이를 19세기 이전에 창작된 ‘조선 구전문학(인민창작)’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서술하면서 그는 ‘속담’이나 ‘수수께끼’가 일반적인 문학의 범주에는 맞지 않는 장르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적 인식의 교양적 의의를 재발견하기 위해 이처럼 범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11)</sup> 이처럼 고정옥은 ‘구전문학(인민창작)’을 개념화하면서 ‘인민창작’의 개념을 먼저 앞세워 ‘구전문학’이라는 개념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먼저 주장하면서도 문학적 연구의 학문적 체계성과 민속학적 연구의 과학적 방법론 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구전문학’을 ‘인민창작’의 관점에서 조망하면서도 ‘조선문학’의 하위 범주로서 ‘구전문학’을 표제어로 내세우는 학문적 선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이후 북한 구전문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1964년에 발간된 『구전문학자료집』에서는 ‘인민창작’이라는 용어 대신에 ‘구전문학’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었다. 이 자료집 서문에 ‘인민창작’이 나중에 ‘구전문학’으로 개명되었다는 서술이 나오

109) 고정옥, 위의 책, 16~61쪽.

110) 고정옥, 위의 책, 15쪽.

111) 고정옥, 위의 책, 16~17쪽.

는데<sup>112)</sup> 이를 통해 '인민성'에 대한 관점이 희석된 것은 아니지만, '인민창작'이라는 개념은 1960년과 1961년 무렵에 활발하게 사용된 데 반해 1962년 이후에는 '구전문학'이라는 개념과 경합하거나 점차 '구전문학'으로 대체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4년에 발간된 『구전문학자료집(설화편)』의 서문에서도 '인민성'의 개념이 '구술성'이나 '구두성' 뒤로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다. 이 책의 서문은, “근로 대중의 집체적인 재능과 지혜에 의하여 창조된 설화, 민요, 민간극, 속담, 수수께끼 등 다양한 종류를 포괄하고 있는 구전 문학은 사회 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의 **인민적 지식**의 보고이며 문화적 성과이라는 데서 사회 생활과 문화 및 예술사에서 **인민의 역할을 인식하는** 귀중한 자료로 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구전 문학 작품들에는 과거 시기 인민들의 경제 생활 형편과 진보적인 사회 정치적 및 류리 도덕적 견해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인식 교양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장구한 역사적 시기 인민 대중들의 집체적인 재능과 지혜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하여 다양한 예술적 형식과 독특한 창조적 수법 등 그 예술적 측면에 있어서도 연구할 가치가 적지 않다. **구전 문학 예술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인민의 위대한 예술적 창조력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의 예술적 위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것은 고전 문화 유산을 계승할 데 대한 당 문예 정책을 관철하는 일부분으로 된다.** -중략 구전 문학 유산의 수집 정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결과 이것들이 현시기 인민들의 현대적인 미각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 동시에 그에 대한 연구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중략 <설화편>에는 외적의 침략을 물리친 선렬들의 영웅적 투쟁을 형상화한 작품들, 봉건적 질곡에서 해방을 지향한 작품들,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인민들의 로동 애호 정신과 창조적 재능을 보여 준

11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구전문학연구실, 『구전문학자료집(설화편)』, 과학원출판사, 1964, 5쪽.(참고로 과학원은 1952년에 만들어지고 사회과학원은 1964년에 만들어졌다.)

작품들, 봉건 통치배들의 무능과 근로 인민의 지해를 반영한 작품들, 근로 인민의 아름다운 도덕 품성을 보여 준 작품들 등을 수록하였다. -중략- 전통적인 구전 설화 연구 자료로서와 근로 대중에 대한 계급 교양 및 대중 문학 예술의 발전에 도움을 주며 이것으로써 구전 문학 자료의 수집 의욕을 자극하는 데 이바지된다면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는 바이다.”<sup>113)</sup>

북한에서 ‘구전문학’ 연구는 1960년대 후반 이후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sup>114)</sup> 그러다 장권표가 1990년에 『조선구전문학개요 고대-중세』를 발표하는데 이 책에서 ‘조선 구전문학’은 ‘조선 문학’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서사문학’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기술된다. 여기서 구전문학은 언어의 예술로서, 서사문학과 같이 현실을 반영하는 묘사 방식 면에서 서사적, 서정적, 극적 방식에 의거하며 사람들을 미학정서적으로 교양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sup>115)</sup> 장권표는 구전문학과 서사문학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창조자’와 ‘창조방식’에 있다고 서술한다. 서사문학이 ‘창작을 전문하는 개인에 의하여 창작되는 데 반해 구전문학은 ‘근로인민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집체적으로 창조’된다는 것이다. “집체창작이 서사문학의 개인창작에 대별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그의 본성과 합법칙성을 규정하는 기본특성”이라고 설명하면서 “인민대중 자신의 집체창작으로서 인민들 자신의 생활과 력사, 전통, 그들의 사회정치적 견해와 지향과 리상을 진실하게 반영해왔다”고 기술하고 있다.<sup>116)</sup>

그는 구전문학이 “인민의 문학으로서 사회적 본성과 계급적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말하고 “창조전승과정에서 작가가 대중과 의견을 나

11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구전문학연구실, 위의 책, 1~3쪽.

114) 김영희(2016b), 앞의 논문 참조.

115)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 고대-중세』, 사회과학출판사, 1990, 1~308쪽.

116) 장권표, 위의 책, 4~5쪽.

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현대에도 작가와 대중의 대화와 소통이 존재”하지만 “개인창작에서 발현되는 집체성은 인민창작으로서의 구전문학의 집체성과는 구별된다.”고 주장하며 연행과 전승의 장면들을 인민창작의 집체적 창조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구전문학을 인민창작, 인민대중창작, 인민의 집체창작이라는 용어들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인민창작의 이러한 집체성을 특징짓고 있다.”고 기술한다. 그가 집체성 다음으로 지적하는 것이 구두성이다. 그는 “구두성은 구전문학의 존재방식을 특징지어준다.”고 말하고 “구전문학의 본성과 그의 존재형식을 특징짓는 창조과정의 집체성과 구두성은 구전문학의 가변성과 무명성도 규정한다. 가변성은 구전문학의 중요한 특성이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그러나 구두성은 집체성과 같이 인민창작의 본질을 규정하는 기본특성으로는 되지 않는다. 인민창작으로서의 구두성은 인민이 문자문화를 향유할 수 없었던 과거 착취 사회의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처지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서술한다. 또한 현대에 와서 인민창작의 구두성은 약화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인민창작이 꼭 구두로만 창조되고 보존되고 전승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117)</sup>

“이런 의미에서 오늘 ‘구전문학’이란 용어는 현대의 인민창작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도 인민창작이 서사적 수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구전적 형식으로도 창조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특히는 지금까지 인민창작을 ‘구전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써온 것이 관습으로 굳어진 조건에서 현대 인민창작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구전문학을 설화, 민요, 민간극, 속담, 수수께끼로 분류하고 ‘조선

117) 장권표, 위의 책, 5~9쪽.

구전문학'이 '조선 문학'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말한다. “한 민족문학의 발생발전의 력사는 구전문학과 서사문학의 력사로 이루어지는데” 서사문학과 구전문학은 서로 상호작용하되, “구전문학은 서사문학 발생 이전에 출현하여 자기 발전의 역사와 전통과 유산을 갖고 있으며 서사문학의 출현을 준비하며 그것의 직접적 원천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서사문학 출현 이후에는 서로 호상작용하며 발전해왔다.”는 설명도 덧붙인다.<sup>118)</sup>

이와 같은 장권표의 주장은 고정옥의 관점을 대체로 계승하고 있지만 좀더 확실하게 ‘인민창작’과 ‘구전문학’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인민창작’의 병기 없이 ‘구전문학’을 표제어로 내세우고 명확하게 ‘문학적 관점’에서 ‘조선 문학’의 하위 범주로 ‘조선 구전문학’에 대한 논의를 서술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르면, ‘folklore’의 번역어로서의 성격이 강한 ‘인민창작’은 민속학의 영역에 가까워서 문학적 연구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사상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인민성’이 강조된 ‘인민창작’의 관념은 ‘구전문학’의 성격이자 지향점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핵심 내용으로 간주된다. ‘구전문학’이 ‘인민’의 ‘창작’이자 ‘문학’이며, ‘인민성’을 지향하고 구현하는 문학이라는 점은 명확하게 드러내되, 인민 보편의 문화적 창조물이라는 의미나 그와 같은 창작의 산물로서 인민의 지혜라는 의미는 ‘구전문학’ 연구의 경계 바깥으로 점차 내몰아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의 ‘구전문학’ 연구가 ‘문학’이라는 학문 영역의 구심을 향해 더 깊이 진입해 들어간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구전문학’ 연구에서 ‘문학성’에 초점을 둔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의 강화는 1970년대 이후 남한의 ‘구비문학’ 연구에서도 나타난 연구 경향 가운데 하나였다.

118) 장권표, 위의 책, 9~12쪽.

## 6. 나오며

남한에서 사용되는 '구비문학(口碑文學)'이라는 말이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개념인 것처럼 북한에서 사용되는 '구전문학' 또한 시대적 요청에 응대하며 형성된 하나의 역사적 개념이다. 북한에서 '구전문학'에 앞서 먼저 발견된 개념은 '인민창작'이었다. '구전문학'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50년대 말~60년대 초 북한 사회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학문적으로 먼저 긴급하게 요청된 것은 '조선문학'의 인민성을 밝혀줄 '인민창작'이라는 개념이었다.

경성제대 조선어문학 강좌 수강생이었던 고정옥에게 '인민창작'은 먼저 '민중의 지식 혹은 지혜'를 뜻하는, 혹은 포괄적으로 '인민의 것'을 함의하는 'folklore'의 번역어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고정옥을 비롯한 당대 북한 구전문학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있던 소비에트 민속학의 영향 아래에서 '인민창작'의 민속학적 개념은 더욱 학문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던 고정옥에게 민속으로서 민요는 1930년대에도 피지배계급의 노래였다. 다시 말해 '인민성'에 대한 발견의 단초가 이미 해방 이전에도 정초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정옥은 해방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이와 같은 경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월북 이후에는 과학원 소속 연구자들과의 교섭과 토론을 통해 '인민창작'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게 되는데 50년대 말을 지나 60년대 초에는 '구전문학'을 북한 문학의 하위 영역으로 구축하면서 '인민창작'을 나란히 병치함으로써 그의 학문적 고민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960년대 초반 북한 문학계에서는 '인민'의 개념이 정치적인 주제로 특정되고, '인민성'의 내용이 사상적으로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반종과 투

쟁 이후 김일성 중심의 정치체제 정비,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농업 협동화 및 천리마 운동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대중 인민 교양의 필요성 등이 북한 문학 연구자들에게 핵심적인 사회적 조건으로 대두되면서 ‘조선문학’의 정체성을 ‘인민성’의 관점에서 더욱 확고히 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북한 ‘구전문학’ 연구자들은 조선의 것을 폄하하는 사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에서 낭만적으로 이상화하는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봉건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 현상을 직시하여 이를 변별함으로써 계급적 관점을 철저히 정비하고, 항일 무장투쟁기 문학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혁명적 전통과 인민적 지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야만 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한층 이념적으로 강화되고 사상적으로 정비된 ‘인민창작’의 개념이 1960년대 초에 대두되었고 이의 결과로서 ‘인민창작’을 표제어로 내세운 잡지가 과학원에서 발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문적 논쟁 속에서 ‘인민창작’의 개념은 문학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었다. 고정옥이 『조선구전문학연구』에서 ‘구전문학’을 앞세우고 ‘인민창작’을 괄호 안에 병기한 것이나,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구전문학’ 관련 저작에서 ‘구전문학’이라는 용어가 표제어로 채택된 것은 ‘인민’이나 ‘인민성’의 이념적 지향을 견지하더라도 ‘인민창작’으로 소환되던 대상을 ‘조선문학’의 하위 범주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었다. 사상적 지향과 별개로, 학문적으로는 ‘민속학’과 ‘문학’ 사이에 있으면서 ‘문학’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인민창작’이라는 개념을 문학 연구의 주요 범주나 문학의 하위 갈래를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는 북한 문학, 다시 말해 ‘조선’의 ‘구전문학’을 학문적 체계성에 입각하여 과학적 이론의 토대 위에 구축해야 하는 학술적 소명에 대한 응답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술적 모색은 필연적으로 '민속학'과 '문학'의 관계, '기록성'과 '구술성'의 관계, '인민성'과 '구술성' 사이의 길항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적 주제들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대 후반 북한 학계의 논쟁적 분위기가 1960년대 초반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학문 공동체 내부가 동질적인 목소리로 뒤덮이면서 이와 같은 쟁점들은 각종 학문적 언술의 표면에서 사라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논쟁의 불씨로 남아 있었다.

북한 '구전문학' 연구사에서 '인민'이나 '인민성'을 포함한 '인민' 담론의 계보를 추적하는 일은 남한의 '국문학사', 혹은 '한국문학사'의 주요 개념과 범주를 비평적으로 탐색하는 일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구전문학' 내부의 '인민성'과 '구술성'의 관계 문제를 '구술성'과 '기록성'의 문제로 전환하면서 '구전문학'과 '서사문학'을 대별 관계로 정리한 1990년 장권표의 논의는 여러 쟁점을 내포한 것이면서, 동시에 남한의 '구비문학' 연구사 검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1950년대 북한 구전문학 연구자들 내부의 논쟁을 좀더 치밀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고정옥의 『조선 구전문학연구』나 장권표의 『조선구전문학개요』의 핵심 개념과 쟁점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고정옥, 『조선의 민요에 대하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선문학 강좌 학부 졸업 논문 상/하권, 1938(1939), 1~505장.
-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1~348쪽.
-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1~521쪽.
- 과학원 어문학연구소, 『조선어문』, 과학원출판사, 1957~1961.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편, 『인민창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1960년 제2집/제3집, 1961년 제1집/제2집/제3집, 1960~1961.
- 최중배/현두천 편, 『구전문학자료집: 설화편』,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1~205쪽.

### 2. 논저

- A·開也夫 저, 連樹聲 역, 陳大維 교감, 『俄羅斯人民口頭創作』, 中國民間文藝出版社, 1964, 1~78쪽.
- Alan Dundes, “Who are the Folk?”, *Interpreting Folklo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 고정옥, 『조선의 민요에 대하여』 상권/하권,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논문, 1938(1939), 1~505쪽.
-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1~348쪽.
-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1~521쪽.
- 김상현, 『Folklore, Fakelore, Digitized Lore: 18-21세기 러시아 민속 연구사』, 『e-Eurasia』 3,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8, 37~55쪽.
- 김상현, 『러시아 민속사와 민속연구의 통합적 해석 모델』, 『e-Eurasia』 18,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9, 11~16쪽.
- 김상현, 『러시아 민속학사의 이해를 위한 통합 모델: 전통의 발견과 창조, 그리고 정치적 이용의 변증법』,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69~102쪽.
- 김상현, 『러시아 민속학사의 이해를 위한 통합모델』, 『국제지역연구』 13권 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69~102쪽.
-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144, 한국사연

- 구희, 2009, 69~95쪽.
- 김성보, 『북한의 역사 1』, 역사비평사, 2014, 1~267쪽.
- 김영희, 「'구비문학(口碑文學)'이라는 개념과 범주의 형성 과정 탐색」, 『열상고전 연구』, 열상고전연구회, 2015, 365~414쪽.
- 김영희,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 탈식민적 전환의 모색과 잉여-경성제국대학 학부 졸업논문(1938년)과 수선사 발간본(1949년)의 비교」, 『온지논총』 49, 온지학회, 2016, 29~80쪽.
- 김영희, 「1960년대 초 북한 잡지 <인민창작> 연구」, 『열상고전연구』 53, 열상고전연구회, 2016, 365~414쪽.
- 서선정, 「민중의 문학에서 허위 민속으로: 비평 속에 드러난 소비에트 구술문학과 이데올로기」, 『러시아연구』 제24권 제1호,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2014, 94~95쪽.
- 烏丙安, 『民間口頭傳承』, 長春出版社, 2014, 1~45쪽.
- 尹虎彬, 「20世紀口傳文學研究的十個誤區」, 『民族藝術』 4기, 2005, 1~93쪽.
- 이세영, 「북한 노동자층의 형성과 의식 변화-‘천리마작업반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1~62쪽.
- 이신철, 「'인민'의 창조와 사라진 '민중'-방법으로서 북조선 민중사 모색」, 『역사문제연구』 23, 역사문제연구소, 2010, 195~232쪽.
- 임종명, 「해방 공간과 인민, 그리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한국사연구』 167, 한국사연구회, 2014, 193~246쪽.
-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 고대-중세』, 사회과학출판사, 1990, 1~308쪽.
- 鍾敬文 著, 董曉萍 편집, 『民間文藝學的建設』, 『鍾敬文文選』, 2013, 99~106쪽.
- 鍾敬文, 『民間文學概論』, 上海文藝出版社, 1980, 1~23쪽.
- 鍾敬文 著, 『民間文藝之教育意義』, 『民間文藝談藪』, 1981, 41~44쪽.
- 鍾敬文 著, 「人民口頭創作在民衆生活中的位置和作用」, 『民間文藝談藪』, 1981, 30~35쪽.
- 한성훈, 『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2012, 1~631쪽.
- 홍석우, 「한스 나우만의 문화이론과 소비에트의 민속학」, 『슬라브연구』 제 17권 2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01, 77~91쪽.
- 홍윤희, 「중국기층문화의 주체는 누구인가-중징원의 민속학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90, 중국어문학연구회, 2015, 471쪽.

## ABSTRACT

The genealogical approach to the discourse of '*the people*' rising  
in the study on the oral literature of North Korea

Kim, Young-hee

This essay is the analysis on the genealogy of the discourse of '*the people*' in the studies of the oral literature of North Korea. Since Korean War(1950-1953), the researchers of North Korean literature had concentrated on framing and making tradition, genealogy, and identity of North Korean literature, affected by the government,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Council of People's Commissars. So they recalled the terms of "*In-min-chang-jak*"(meaning of a creation by the people) and the concept of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The people means political subjects conditioned by historical situations of North Korean society from the late 1950s to the early the 1960s.

Go-Jeong-Ok was the researcher of leading studies and projects of the Korean Academy of Social Science in North Korea, from the late 1950s to the early the 1960s. He majored in Korean oral literature, especially folksongs. He had studied about Joseon-literature in the class of Kyeogseoung(Keijo) Imperial University(京城帝國大學) in 1930s. When he graduated from university in 1939, he wrote the thesis about Joseon-folksongs. Aft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d finished, he re-wrote his graduation thesis and then published the book of *the study on Joseon-folksongs*(『朝鮮民謠研究』) in 1949. Then he went to North Korea, and had written the book of *the study on oral literature of Joseon*(『朝鮮口傳文學研究』) in 1962. He had studied and had written about the oralities and the characters of the people in Korean folksongs. And he had influenced on the studies of oral literature in North Korea.

At that times the researchers of oral literature of North Korea were influenced by the scholars of folklore of Soviet and China, especially by

В.И.Чичеров, as a soviet folklorist. And the researchers of the Korean Academy of Social Science in North Korea investigated and studied materials of oral literature-oral narratives, folksongs, folk dramas, proverbs and riddles- in terms of what was things created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in those days. And they published the journals of "*In-min-chang-jak*"(meaning of a creation by the people), which was the organ papers of the Korean Academy of Social Science in North Korea.

Since then, 'oral literature' and '*In-min-chang-jak*' have been competing concepts each other. The researchers of oral literature in North Korea had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orality and literacy, folklore and literature, orality and the people, in more detail. In 1990s Jang-Kwon-Pyo used the term of 'oral literature' instead of '*In-min-chang-jak*'. But the term of 'oral literature' has predicated the idea of a creation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Key Words** the people, North Korea, Korean literature, Joseon literature, oral literature, the journal of *In-min-chang-jak*, meaning of a creation by the people, folksong, the institute for research in social science, Go-Jeong-Ok, socialist realism, the book of the study on oral literature of Joseon

논문투고일 : 2016.10.15
심사완료일 : 2016.11. 2
게재확정일 : 2016.11.15

